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중국·일본의 메니큐어 문화적
관습의 유사성과 차별성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2013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손 정 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한국·중국·일본의 메니큐어 문화적
관습의 유사성과 차별성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Nail Design Analysis through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Nail Polishing in Korea,
China and Japan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손정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한국·중국·일본의 메니큐어 문화적
관습의 유사성과 차별성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nail Design Analysis through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Nail Polishing in Korea,
China and Japan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손정아

손정아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한국·중국·일본의 메니큐어 문화적 관습의 유사성과 차별성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손 정 아

현대의 문화는 각 국의 독특한 문화양식을 재정립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데 창의적인 개발이 필요한 메니큐어 문화 역시 질적 향상을 요구하여 세계화 시대에 중요한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 글로벌 한 사회 속에서 메니큐어가 대중화 됨에 따라 남녀노소 구분없이 현대사회의 트렌드로 인식되어 아름다움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서비스인 기본적인 손관리 뿐만 아니라 화려한 색상과 개성있는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기술적인 서비스를 요구 하고 있다.

누구나 개성이 있듯이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민족성에 따라 다른 고유한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색채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인접한 한국·중국·일본을 선정하여 문화적 관습과 국가적 특성에 따른 유사성과 차별성을 분석한 후 그 나라의 전통색채와 문양들이 조형 예술로써 네일 디자인에 연출되어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메니큐어의 유래를 살펴본 후, 디자인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색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일 디자인은 어떤 표현기법으로 어떤 색채를 갖는지 색채 팔레트를 제시하였고 NCS의 색체계를 통한 색채분석을

하였다.

둘째,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색채 이미지 스케일을 통한 분석을 하였으며 네일 디자인에 응용하기 앞서 전통문양이 어떻게 디자인화 되어 실생활에서 사용 되어지는를 분석해 보았다.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전통문양을 보면, 식물문이나 동물문의 문양사용이 한·중·일에서 많은 유사성을 갖었으나 일본만은 장식적으로 사용하는 생활문의 사용이 더러 있었다. 색채를 보면, 한국은 자연 순응주의의 특성으로 보여지는 자연의 색채를 선호하며 고중명도나 중저채도의 특성을 보였으며 건축에서는 그린, 블루의 화려한 색채의 특성이 나타났다. 중국은 빨강과 노랑의 색채 사용이 많으며 자연색과 반대색을 두어 밝고 강한 색채사용과 청색조의 특성을 보였다. 반면에 일본은 무채색이나 블루계열로 탁색계열이 많았으며, 주로 의상에 사용하는 난색계열과 색채대비를 두어 강렬한 이미지의 특성을 보이는 색채관이 나타났다. 이렇듯 문화적 관습의 영향을 받아 한·중·일에서 나타나는 색채와 문양은 유사성이 있는 반면 차별성도 보이고 있었다.

현재 네일 표현기법에서 나타나는 색채를 고려하여 각 국의 대표적 이미지를 선정한 디자인을 색채와 함께 네일 디자인으로 표현해 본 결과, 각 국에서 선호하는 색채와 전통색채는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전통문양의 디자인이 부각 되어지는 네일 디자인으로의 응용 또한 조화롭게 연출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창의성과 독특한 색채, 기술을 요하는 현시대의 네일 디자인이 다른 관점에서도 응용되어 조화롭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의도와 목적으로 시도를 하고자 한다.

【주요어】 메니큐어, NCS색체계, 색채 이미지 스케일, 전통문양, 전통색채, 네일 디자인, 네일 표현기법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2 장 한국·중국·일본 메니큐어와 전통색채 및 문양의 문헌적 고찰	5
제 1 절 메니큐어와 네일 디자인의 의미	5
1. 메니큐어의 유래	5
2. 네일 디자인의 의미	9
3. 네일 디자인의 사회적 반영	12
제 2 절 색채와 전통색채의 의미	13
1. 색채의 개념	13
2. 전통색채의 개념	15
제 3 절 한국·중국·일본의 전통색채와 문양의 문헌적 고찰	16
1. 한국의 전통색채	16
2. 중국의 전통색채	20
3. 일본의 전통색채	22
4. 한국·중국·일본의 전통문양의 특성	25
5. 전통색채와 문양을 응용한 실례	48
제 3 장 한국·중국·일본의 문화적 관습에 따른 유사성과 차별성	62

제 1 절	한·중·일의 국가적 특성에 따른 유사성과 차별성	62
1.	한·중·일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유사성과 차별성	62
2.	사회·문화에 따른 특성	66
3.	지역 환경에 따른 국가 선호색채의 특성	74
제 2 절	한국·중국·일본의 네일 디자인 표현기법에 따른 문화적 차이	82
1.	한국의 네일 테크닉과 색채	83
2.	중국의 네일 테크닉과 색채	88
3.	일본의 네일 테크닉과 색채	91
제 4 장	한국·중국·일본의 전통색채와 문양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적용한 네일 디자인 제안 사례	97
제 1 절	한국 디자인을 응용한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97
1.	탈놀이 중 하회탈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	97
2.	도자기를 응용한 네일 디자인	101
3.	봉황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	103
제 2 절	중국 디자인을 응용한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106
1.	경극에서의 검보를 응용한 네일 디자인	106
제 3 절	일본 디자인을 응용한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109
1.	일본 벚꽃 사쿠라를 응용한 네일 디자인	109
제 5 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4
ABSTRACT		121

【 표 목 차 】

[표 1-1] 연구의 흐름도	4
[표 2-1] 나라별 전통색채	24
[표 2-2] 전통문양의 상징성과 조형성	47
[표 2-3] 서울시티투어버스 이미지와 색채분석	49
[표 2-4] 한울 화장품 이미지와 색채분석	51
[표 2-5] 패브릭 디자인 이미지와 색채분석	53
[표 2-6] 인테리어 이미지와 색채분석	55
[표 2-7] 가구 이미지와 색채분석	57
[표 2-8] 전통문양 QR코드 이미지와 색채분석	59
[표 2-9] 스카프 이미지와 색채분석	61
[표 3-1] 한·중·일 시대에 따른 국가별 특성	73
[표 3-2] 한국 네일디자인 및 색채분석	84
[표 3-3] 한국 네일디자인 및 색채분석	85
[표 3-4] 한국 네일디자인 및 색채분석	86
[표 3-5] 한국 네일디자인 및 색채분석	87
[표 3-6] 중국 네일디자인 및 색채분석	88
[표 3-7] 중국 네일디자인 및 색채분석	89
[표 3-8] 중국 네일디자인 및 색채분석	90
[표 3-9] 일본 네일디자인 및 색채분석	91
[표 3-10] 일본 네일디자인 및 색채분석	92
[표 3-11] 일본 네일디자인 및 색채분석	93
[표 3-12] 일본 네일디자인 및 색채분석	94
[표 3-13] 일본 네일디자인 및 색채분석	95
[표 4-1] 하회탈 중 양반탈의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100
[표 4-2] 도자기의 운학문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102
[표 4-3] 새문양의 상징성	103
[표 4-4] 봉황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105

[표 4-5] 경극의 검보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108
[표 4-6] 일본의 벚꽃 사쿠라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110

【 그림 목 차 】

<그림 2-1> NCS 색상환과 NCS 색삼각형	14
<그림 2-2> 오방정색	19
<그림 2-3> 청자 상감 국화 모란 당초	28
<그림 2-4> 당초문	28
<그림 2-5> 청대 모란문 청화백자	29
<그림 2-6> 칠기공예의 모란문	29
<그림 2-7> 청화백자 매화무늬 병	31
<그림 2-8> 매화무늬 조끼	31
<그림 2-9> 벚꽃무늬 보자기	32
<그림 2-10> 벚꽃무늬 원단	32
<그림 2-11> 벚꽃무늬 부채	32
<그림 2-12> 벚꽃무늬 우치카케	32
<그림 2-13> 조선시대 포도그림	33
<그림 2-14> 칠화백자 포도문	33
<그림 2-15> 포도문양 칠기 술병	34
<그림 2-16> 용문양의 왕실 옷	36
<그림 2-17> 중화전 내부의 용	36
<그림 2-18> 봉황문 흉배	37
<그림 2-19> 금제봉황 머리꽃이	37
<그림 2-20> 학 문양	39
<그림 2-21> 해치 상	40
<그림 2-22> 서울상징 해치	40
<그림 2-23> 십장생도	42
<그림 2-24> 일본 부채들	45
<그림 3-1> 한국관용색명	75
<그림 3-2> 한국 상징표현들	76
<그림 3-3> 한국 선호 색채 스케일	76

<그림 3-4> 중국관용색명	77
<그림 3-5> 중국 상징표현들	78
<그림 3-6> 중국 선호 색채 스케일	79
<그림 3-7> 일본관용색명	80
<그림 3-8> 일본 상징표현들	81
<그림 3-9> 일본 선호 색채 스케일	82
<그림 3-10> 한국 디자인스킵취	84
<그림 3-11> 한국 2D	85
<그림 3-12> 한국 아크릴스킵취+실사데칼	86
<그림 3-13> 한국 젤+스톤	86
<그림 3-14> 한국 디자인스킵취-스틸레토	87
<그림 3-15> 한국 디자인스킵취+핸드페인팅	87
<그림 3-16> 중국 3D	98
<그림 3-17> 중국 일러스트	98
<그림 3-18> 중국 포크아트	89
<그림 3-19> 중국 마블+3D	89
<그림 3-20> 중국 젤+파츠	90
<그림 3-21> 중국 2D (중국선수작품)	90
<그림 3-22> 일본 디자인스킵취	91
<그림 3-23> 일본 디자인스킵취	91
<그림 3-24> 일본 젤마블	92
<그림 3-25> 일본 아크릴오버레이	92
<그림 3-26> 일본 파츠	93
<그림 3-27> 일본 2D	93
<그림 3-28> 일본 레이스	94
<그림 3-29> 일본 2D+파츠	94
<그림 3-30> 일본 디자인스킵취-스틸레토	95
<그림 3-31> 일본 디자인스킵취+에어브러쉬	95
<그림 4-1> 하회탈의 종류	98

<그림 4-2> 양반탈	99
<그림 4-3> 작품제작-하회탈 중 양반탈	100
<그림 4-4>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101
<그림 4-5> 작품제작-도자기 운학문	102
<그림 4-6> 봉황	104
<그림 4-7> 작품제작-봉황	105
<그림 4-8> 북경 경극공연	107
<그림 4-9> 검보의 종류	107
<그림 4-10> 작품제작-경극의 검보	108
<그림 4-11> 하나미를 즐기는 일본풍경	109
<그림 4-12> 일본의 벚꽃 사쿠라	109
<그림 4-13> 작품제작-일본의 벚꽃 사쿠라	11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문화는 각국의 독특한 전통문화양식을 재정립하여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많다. 창의적인 문화 개발이 필요한 데 있어 네일 문화 또한 세계화 시대에 앞서 나가기 위한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방면으로 형성되어 현대 사회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 미용 분야로 발달한 네일 디자인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많이 함으로써 메니큐어의 관심이 지대하고 중요하게 자리매김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삶의 풍요로운 시대가 되면서 네일 문화는 점차 확대되어갔다. 여성들의 3대 관심사인 건강, 배움, 아름다움 중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미의 완성 단계 개념으로써 미용분야의 전문화로써 세분화되어 확대된 것이다. 글로벌한 사회 속에서 대중화됨에 따라 건강과 아름다움으로 이미지 구축과 관리가 생활화됨을 충족시켜 주는 서비스로 인식되었으며, 전문산업분야로써 네일아트는 공급과 특히 수요가 높아지면서 급성장을 해 온 것이다. 현대 사회의 트렌드라 할 수 있는 네일은 미국 사회에서 큰 시장을 주도 하면서 시작 되었으며,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 국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소비 계층을 형성하여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네일 디자인은 기본적인 손 관리의 목적이었으나, 현 시대는 아름답고 화려한 색상과 개성 있는 디자인을 연출하는 아트를 중요시 하게 됨에 따라 기술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네일 디자인은 캐릭터에서부터 동물, 식물, 아르누보적인 부드러운 곡선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으며, 색채를 사용하여 다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수가 있다.

또한 색채는 누구나 개성이 있듯이 나라마다 문화적 관습과 민족성에 따라 다른 고유한 색채를 표출 할 수 있는데, 그 나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써 전통의식을 통한 감성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한국·중국·일본이 역사적으로 인접한 문화권 안에서 발전해왔기에 문화적 관습이나 지역적, 국가적 특성에 따른 유사성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표현되는 전통색채와 국가의 상징적인 문양들이 조형 예술로써 네일 디자인에 연출되어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분야에서도 전통색채와 문양들이 잘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듯이 본 연구를 통해 작은 공간에서도 예술의 행위가 일어나며 전통색채와 문양을 응용하여 연출하였을 때에도 네일 디자인에 조화롭게 활용되어지길 바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의와 방법

본 연구는 한국·중국·일본의 메니큐어와 문화적 관습에 따른 유사성과 차별성을 적용한 네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로써, 메니큐어와 네일 디자인의 의미를 알아보고, 한국·중국·일본의 시대적 배경으로 나타나는 사회·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적 특성과 국가별 선호색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문양이나 민화를 바탕으로 한 연구논문은 있으나, 국가적 특성에 따라 그 나라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전통색채와 함께 문양을 적용한 네일 디자인을 한 연구는 없었기에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국가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상징적 이미지로 전통색채와 문양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색채와 문양이 실생활에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어지는 실례와 문화적 차이로 표현되는 한국·중국·일본의 테크닉에 따른 네일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 나라의 상징적인 문양들을 전통색채와 함께 연출하였을 때 네일 디자인에 조화롭게 활용되는지에 의의를 갖는다.

첫째, 메니큐어의 유래와 네일 디자인의 의미를 알고 나라별 메니큐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 후, 어떤 의미에서 메니큐어가 사회적으로 반영되어지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색채와 전통색채의 개념에 따라 한국·중국·일본의 전통색채와 문양에 대해 문헌 고찰하였다. 그것을 토대로 한 현 시대의 전통문양 응용사례를 색채 팔레트를 통한 NCS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NCS분석은 인덱스를 사용하여 유관측색으로 색채분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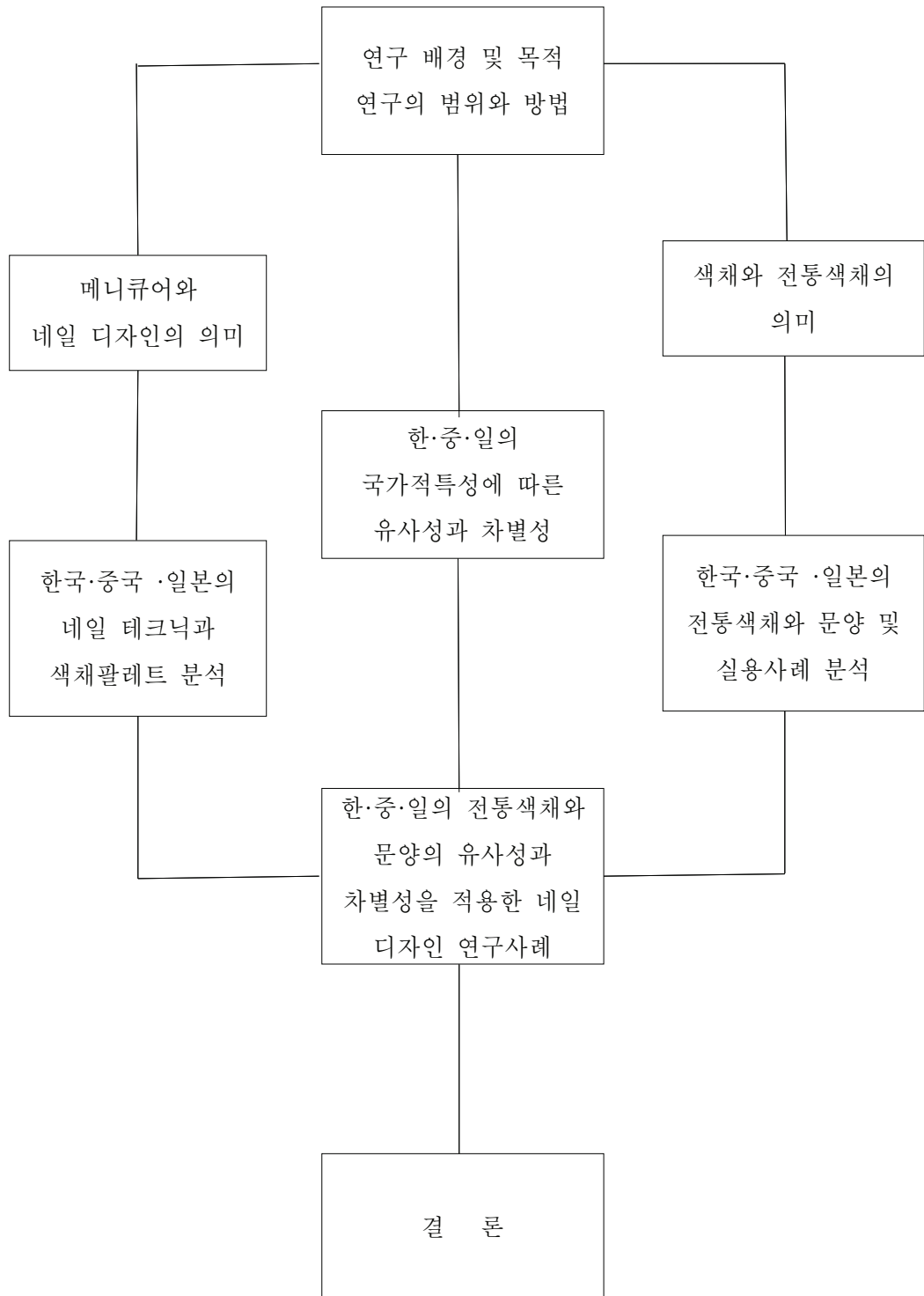
셋째, 한국·중국·일본의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문화적 관습의 특성과 사회·문화와 자연환경에 따라 표현되어진 선호색채에 대해 고찰 연구하였으며,

넷째, 한국·중국·일본의 네일 테크닉을 표현기법에 따라 분류하여 색채 팔레트와 NCS 분석을 하였다.

다섯째, 국가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분석을 통한 전통색채와 문양을 적용한 네일 디자인을 각 국가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선정하여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색채 팔레트와 NCS분석을 통한 연구사례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을 다음의 [표 1-1]에 연구의 흐름도로 요약정리 하였다. 한·중·일의 전통색채와 문양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네일 디자인을 제안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메니큐어 문화와 테크닉을 통한 색채분석을 한다. 네일 디자인은 문양과 색채를 통해 표현되어지므로 각 국의 전통 색채와 문양을 분석을 하고, 실용 사례를 추출하여 색채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일의 특징적 이미지를 제시하기에 앞서 국가적 특성에 따른 유사성과 차별성을 문헌고찰 하고자 한다.



[표 1-1]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 한국·중국·일본 메니큐어와 전통색채 및 문양의 문헌적 고찰

제 1 절 메니큐어와 네일아트의 의미

1. 메니큐어의 유래

5000년에 걸쳐 변화하고 있는 메니큐어는 손과 손톱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치료의 의미를 갖는다.

메니큐어(Manicure)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리쉬(Polish)의 색상이 아니라, 라틴어의 마누스(Manus) + 큐라(Cura)라는 손의 관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는 손톱모양(Shape), 큐티클정리(Cuticle), 핸드 마사지(Hand Massag), 칼라링(Coloring) 등의 포괄적인 뜻이라 할 수 있다.

B.C. 3000년경 이집트와 중국의 상류층에서 최초로 네일 관리가 시작된 것으로 문헌에 전해진다.¹⁾ B.C. 3000년 이집트 파라오 무덤에서 금으로 만든 메니큐어 세트가 발견되었고, 바빌론이나 로마 시대에는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손톱에 색을 칠할 정도로 남성들의 전유물로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부를 상징하여 귀족층에 의해 번성하여 사회적인 지위를 기준 삼기도 하였다. B.C. 2000년경에 손톱을 보라색으로 코팅한 시너 미라가 있었으며²⁾ 또한, 관목에서 추출한 붉은 오렌지색 헤나를 손톱에 입혀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다.

17C 인도에서는 여성들이 어려서부터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로 네일 매트릭스(nail matrix)³⁾에 문신바늘로 물감을 주입시켜 손톱을 장식했다.⁴⁾

1) 이영순 외, 『네일관리학』, 서울 : 고문사, 2000, p.9.

2) 이영숙 외, 『네일관리학』, 서울 : 청구문화사, 2000, p.9.

3) 네일 매트릭스(nail matrix/조모)는 조근/네일루트 밑에 위치하여 손톱각질세포의 생산과 성장을 조절하고 혈관, 신경, 림프관이 분포한다. 조모가 손상을 입게 되면 손톱 성장에 저해가 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영순 외, 전제서, p.87.

18C 로코코시대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손톱 화장이 이루어져 귀족뿐만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전 유럽에 확산되어졌다.

가. 중국의 메니큐어 역사 및 문화

B.C.3000년경에 중국에서는 붉은 색이 악귀를 막아준다는 주술적인 뜻을 담아 재배한 “홍화”를 사용하여 손톱에 색을 물들여 “조홍”이라 불리웠다. 또한 밀납과 계란 흰자를 사용하여 지금의 팔리쉬처럼 손톱에 발랐고, B.C. 600년경 금과 은색으로 귀족의 신분을 과시하였다. 15세기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명(Ming)왕조들은 흑색과 적색을 발랐다.⁵⁾ 17세기 상류층에서는 금이나 대나무 부목을 이용하여 긴 손톱을 유지하면서 상류층의 신분을 과시하기도 했으며, 19세기 이후 서태후(1835~1908)는 10cm이상의 손톱을 길러 공문서를 표시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이런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 에나멜과 순금으로 무늬를 새겨 넣어 손톱 장신구를 손에 끼워 손톱을 보호했다.⁶⁾

한국과 일본보다 뒤쳐진 네일 디자인 문화가 상해에서 일본 NSJ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INC 2001 in 上海” 네일 컨테스트를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네일 디자인 분야가 구축되고 있다. 네일이 앞선 일본이나 한국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네일은 활성화를 이루고 있으며 해마다 네일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 세미나를 통하여 네일 산업은 성장해가고 있으며 현재 상하이와 북경을 중심으로 메니큐어가 일반대중들에게 대중화되어있다.

나. 일본의 메니큐어 역사 및 문화

4) 김영미, 『Nail Technology』, 서울 : 고문사, 1999, p.4.

5) 윤미선, 「메니큐어 文化 類型에 따른 治療와 表現 技法에 관한 研究」,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5.

6) 김학순, 「한국 전통 문양을 모티브로 한 네일 디자인 연구」,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14.

주술적 의미로 시작하여 일본도 한국처럼 봉선화로 손톱을 물들였는데 고귀한 여성들 사이에서만 행해졌다. 봉선화를 물들이는 것으로 평안시대(平安屍臺)부터 강화시대(江華時代)에 걸쳐 유행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구마모토와 오끼나와 지역에서는 아직도 손톱에 물들이는 것을 부적의 의미로 행해오고 있다.⁷⁾

1940년 이후 에나멜의 수입으로 네일아트 문화가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1980년대에는 대중화되어 도쿄를 중심으로 네일아트가 성행하게 되고, 1990년부터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성장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네일아트가 확산되어 미국처럼 일상생활에서의 매너로 삼게 되었다.

2009년에는 토탈 뷰티케어를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네일은 아름다움에 대한 완성이 손끝에서 이루어진다는 컨셉으로 붐이 일어나는데, 1천억엔이라는 네일 시장을 형성하였다.

일본 네일리스트협회(JN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네일 산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3만여명의 네일리스트를 배출하는 한편 8천여 곳의 살롱이 시장을 형성하면서 네일 산업이 튼튼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⁸⁾

단독 네일샵이나 샵인샵, 홈케어로 인해 네일 시장 규모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으며 동경, 오사카, 나고야 3지역에서의 매출액이 전체 4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별 네일이 활성화 되어있다. 또한 이 3지역에서는 해마다 네일 컨테스트를 하여 전 세계에서 선수들이 출전할 만큼 규모도 크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네일 시장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며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네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섬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아크릴 네일이 행해졌으나, 2005년에 도입된 젤 네일⁹⁾로 인해 주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끊임없이 네일 산업은 활성화 되어 증가하고 있다.

7) 윤미선, 전개논문, p.11.

8) Nail Journal, 『NAILPIA, No.1』, 2009, p.18.

9) 젤 네일 : 하드젤과 소프트젤이 있으며 얇게 발려지는 젤팔리쉬가 있다. 일반 칼라와는 다르게 UV램프로만 큐어링이 되며, 3-4주 동안의 지속성과 고광택을 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 한국의 메니큐어 역사 및 문화

전통적 관습이나 풍습으로 여성들은 손톱에 붉은 봉선화를 물들였다. 또한 주술적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삼한시대에는 강이나 바다에 들어가기 전이나 산에 가기 전에 손톱과 발톱에 붉게 칠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염지갑화(染指甲花)”나 “지갑화(指甲花)”라 하여 여인네들이 봉선화로 물들이는 미용풍습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젊은 각시와 어린이들이 봉선화를 따다가 백반에 섞어 짓찧어서 손톱에 물을 들인다”¹⁰⁾ 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있다. 또한 “섬섬옥수(纖纖玉水)”라 하여 ‘손은 마치 봄에 솟아난 죽순 같으며, 손바닥의 혈색이 붉어야 한다’ 고 하여 다산, 다남의 조건으로 삼았다.¹¹⁾

이렇게 메니큐어는 유교적인 영향으로 수용하기 힘들었으나 1988년 이태원에 그리피스 네일살롱이 오픈하면서 네일아트라는 문화의 시초가 되었다. 1996년 압구정동에 갤러리 백화점에 네일샵이 입점하고, 1997년 이후로는 네일 전문샵으로 키스네일, 핑크네일, 헐리우드네일, 썬네일 등이 오픈하며 롯데 백화점 내에 썬네일샵이 입점하였고, 미용실 내의 네일샵인샵으로 인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 계열사 크리에이티브(Creative)의 한국 독점과 코삼, 크리스찬 네일, 네일아트 넘버원이라는 유통회사로 인해 네일제품을 국내에 다량 공급하면서 네일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1998년에는 미국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네일리스트들이 학원과 살롱을 경영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한국네일협회가 발족되어 민간자격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 후 대중화의 선도와 기술향상 등 네일의 발전을 위해 SINAIL98이라는 네일 컨테스트를 개최하여 현재 네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2003년에는 4월1일 네일데이를 선포하여 해마다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2008년 한국네일협회 추산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포함 1만8천여명이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했으며, 40여 종목의 다양한 컨테스트에 2천여명이 넘는 네일인들이 참가했다.¹²⁾ 고 하며 시장규모로는 5천억대를 형성하면서

10) 윤미선, 전계논문, p.12.

11) 김학순, 전계논문, p.15.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0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네일아트(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의 사업체수는 4,516개로 매출액은 2,436억 7,800만원이었다. 종사자 수는 8,914명¹³⁾ 으로 21세기 뷰티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네일 산업이 우리 문화에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네일리스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네일 문화가 자리매김 되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전문 산업분야로 급성장해온 것이다.

2. 네일 디자인의 의미

가. 네일 디자인의 개념

손톱은 피부의 한 부분으로써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인체 해부·생리학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미생물학적으로도 지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전문적인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며,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네일리스트에게 손·발 관리의 서비스를 받는다.

“Nail”이란 원래 “못을 박다, 징을 박다”의 사전적인 의미와 “손, 발톱”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네일을 의학용어로는 오닉스(Onyx)라고도 한다.¹⁴⁾ 네일 디자인은 하나의 조형예술로써 손, 발톱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서비스이다.

따라서, 네일 디자인이란 손·발톱을 관리 (Manicure & Pedicure) 하고 인조 손·발톱을 붙이며 아름답게 꾸미는 미적 활동을 통해 손·발톱과 주변의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으로 정의된다.¹⁵⁾

12) Nail Journal, 전개서, p.15.

13) Weekly Beauty, 『Beauty Magazine』, 2012, NO.102, p.15.

14) 이숙연 외, 『Nail Care and Design』, 서울: 청구문화사, 2002, p.12.

나. 네일아트 변천사

고대 B.C 3000년경에 시작하여 현대까지 약 5000년에 걸쳐 변화되어 온 메니큐어는 17C까지는 상류층을 위한 신분의 표시로 사용되었으나, 18C때 유럽 전체에 확산을 계기로 근대부터는 일반인들에게까지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메니큐어에 필요한 도구나 여러 가지 네일 제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하게 되었다.

시대별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00년대에 일반인들에게 대중화되기 시작하여 네일 끝을 뽀족하게 만드는 아몬드형 네일이 유행하였고, 염소가죽인 샤미스(chamois)를 이용하여 광택을 내기도 했다. 1830년에는 발 전문의사인 시트(Sitts)가 치과에서 사용되던 도구인 소독기능을 하는 오렌지우드스틱(orange wood stick)을 네일 관리에 사용했다. 1885년에는 네일 폴리쉬(polish)¹⁵⁾의 주원료인 필름형성제 니트로셀룰로즈(nitrocellulose)가 개발되었다. 1892년에는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새로운 직업이라는 것으로 도입되었다.

1900~1910년에 메탈파일(Metal File)과 메탈가위(Metal Scissors)를 이용하면서 뉴욕 시에 설립된 플라워리(Flowery)사로부터 사포로 된 파일이 제작되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네일 관리가 시작됨으로써, 유럽에서도 본격적인 네일이 시작되었다. 1925년에는 폴리쉬 산업이 본격화됨으로 대중화를 이루었으나 색상이 다양하지 않는 투명한 자연색 계통의 색을 요즘처럼 전체코트(Full-coat)가 아닌 슬림라인(Slim-line) 방법으로 손톱의 중앙에만 칼라를 바르기도 했다. 1930년대에는 흰색 폴리쉬를 시초로 하여 다양한 계통의 빨간색 폴리쉬가 출시되었고, 메니큐어에 필요한 큐티클 크림(Cuticle cream), 큐티클 리무버(Cuticle remover), 큐티클(Cuticle oil),

15) 이미선,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화 연구 : 네일(미용)아트의 법제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6.

16) 폴리쉬(polish) : 손톱에 바르는 칼라를 의미하며 에나멜이라고도 말한다.

폴리쉬 리무버(Polish remover)가 개발되었다. 1935년에는 인조네일이 등장하였으며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시작돼 현재 77년의 역사를 가진 엠파이어 뷰티스쿨(Empire Beauty School)¹⁷⁾인 미용기관이 설립되었다. 1940년에는 빨간색 칼라를 Full Coat하는 것이 유행하면서 여배우들에 의해 네일 패션이 시작되었다. 또한 맨스 메니큐어(Man's Manicure)¹⁸⁾가 시작되었다.

1957년에는 최초로 아크릴 네일(Acrylic nail)¹⁹⁾을 시행하였으며, 1957년 이후부터 페디큐어(Pedicure)가 등장하여 손뿐만 아니라 발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1960년에는 찢어지고 깨지는 약한 네일을 보강하기 위해 실크(Silk)와 린넨(Linen)을 이용하였다. 1970년대에는 네일 접착제와 접착식 인조네일이 개발되었으며 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네일을 할 수 있는 아크릴 네일이 본격적으로 행해지면서 네일아트 문화가 미국에서 비로소 사랑받기 시작한다. 1980년대에는 네일 악세사리가 유행하면서, 후반에 네일 시장이 급성장 하였다. 1994년 독일에서는 라이트 큐어드 젤 시스템(Light cured system)이 등장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네일 면허증 제도를 도입하였다.²⁰⁾ 1999년에는 아크릴릭에서 사용하는 아크릴 모노머가 금속성분이 많은 MMA(Methyl Methacrylate)라는 화학제품으로 인체에 해를 끼친다고 미국 식약청에서도 금지 시켰던 제품을 오딧세이 네일 시스템(Odyssey Nail System)²¹⁾이 MMA의 단점을 장점화하여 EMA(Ethyl Methacrylate) 제품 “오딧세이 네일시스템 오리지널 라인업”을 개발하였다.

2000년대에는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네일 디자인 아트가 제품의 다양화

17) Trang Nguyen 칼럼 , 『뷰티신문 수』, 제 133호, 2012, p.42.

18) 맨스 메니큐어(Man's Manicure) : 남성을 위한 메니큐어 서비스로 여성들이 받는 서비스와 동일하다. 단 칼라를 바르는 대신 영양제를 바르거나 광택을 내어 마무리를 한다.

19) 스킵춰네일(Sculptured nail)이라고도 불리며 아크릴릭 리퀴드(액체형태), 아크릴릭 파우더(가루형태)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또다른 인조 네일을 만들 수 있으며 굳으면 단단해지므로 굳기 전에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20) 장식임 외, 『네일리스트를 위한 네일아트』, 서울 : 정문각, 2003, p.19.

21) 오딧세이네일시스템(Odyssey Nail System)은 1999년 제품을 처음 런칭하고, 올해로 13년째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네일 토털 프로페셔널 기업이다. 지난 2010년 텍사스 휴스턴에 1차 생산 공장 및 물류센터를 설립해 현재 전 세계 7개의 현지 법인 지사와 36개국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200여명의 전 세계 에듀케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다.

와 더불어 발전하고 있다. 현재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네일 리스트들로 인해 네일 문화는 뷰티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다. 네일 디자인의 사회적 반영

여성들이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네일은 필수조건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전공학과가 신설되고 대중들에게 신종 직업으로 인식됨으로 뷰티 산업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뷰티산업은 웰빙 트렌드와 한류 등과 함께 관광 콘텐츠로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어느 산업 분야보다 유망한 산업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화장품 시장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 산업으로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프렌차이즈나 해외 시장 진출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시장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고 있기도 한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취직하기 힘든 사회가 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무력감을 느끼는 젊은 남성들이 외모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메트로 섹슈얼리즘(metro-sexualism)²²⁾의 특징을 가진 남성은 겉치장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외모를 가꾸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용 시장이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하나의 에티켓으로 자기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남성시장이 블루오션임을 알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이나 이주여성들에게 네일 디자인의 전문 기술을 현장에서 시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꿈과 희망을 주는 캠페인 활동을 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는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사회적인 트렌드이다.

22) 메트로 섹슈얼리즘(metro-sexualism)은 도시에 살고 있는 남성들의 패션, 미용, 인테리어, 요리 등 여성적인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나아가 사회 공헌에 이바지 할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색채와 전통색채의 의미

1. 색채의 개념

색이란 빛이 물체를 비추었을 때 생겨나는 반사, 흡수, 투과, 굴절, 분해 등의 과정을 통해 인간의 눈을 자극함으로써 생기는 물리적인 지각현상을 말한다.²³⁾ 그리고, 색채는 물리적 현상과 생리적, 심리적, 화학적 현상에 의해 성립된다. 이처럼 색채는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여 느낌을 통해 반응을 일으키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경험 해 온 의미나 연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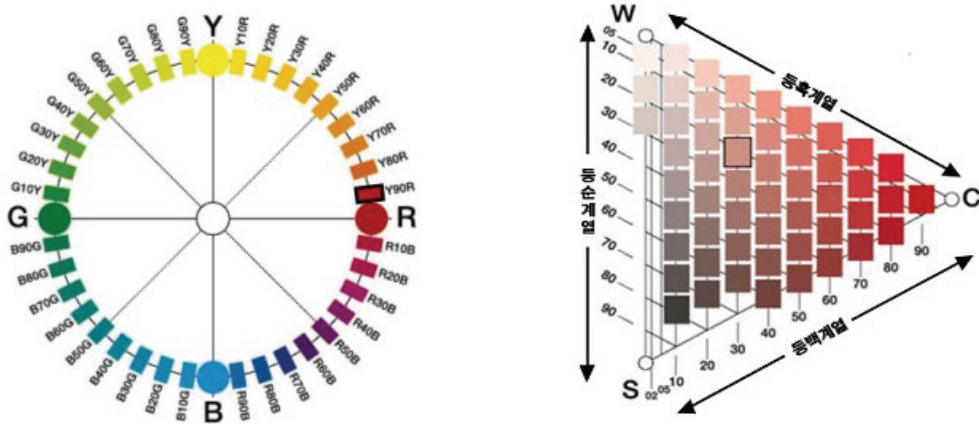
물체색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광원(햇빛)과 색을 인지하는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 뇌에 전달됨으로써 우리는 색을 지각 할 수 있게 되는데,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색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인간이 지각 할 수 있는 범위는 380 ~ 780nm의 가시광선의 영역이다. 1666년 뉴턴(Isaac Newton : 1642 ~ 1727)이 최초로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광선이 무지개 색(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을 갖는다는 것을 분광실험을 통해 발견했다.

또한, 색을 지각 할 때는 색의 3속성에 의해 전달되며 이때 색의 3속성을 색상, 명도, 채도라 한다.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를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분류해 놓은 색입체(Color Tree)가 있는데 이것은 3차원적으로 표현되어 색을 알 수 있게 하는 Munsell color system 이다. 먼셀 색체계는 1905년 미국의 색채 교육자 A.H. 먼셀이 창안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색계의 색체계이다. 색의 3속성에 따라 체계적인 배열로 색을 분류하여 배치하였으며 적(R), 황(Y), 녹(G), 청(B), 자

23) 우석진, 영진정보연구소, 『컬러리스트 기사/산업기사 필기 특별대비』, 서울: 영진닷컴, 2005, pp.1-2.

(P)색의 5색을 기본으로 한 20색상환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색계로는 스웨덴 연구소에서 개발되어진 NCS(Nature Color System) 색체계가 있는데, 1874년 독일의 생리학자 헤링(Ewald Hering)에 의해 창안되었다. 이것은 색을 보고 느끼는 감성을 수치로 표기화 할 수 있으며, 표기된 색 기호에 따라 색을 추출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S 2030-Y90R의 색 표기는 2030은 20%의 검정색도와 30%의 유채 색도를 나타내며 Y90R은 90%의 빨간 색도를 가진 노란색이다. 뉘앙스는 검정색도(S), 흰색도(W), 유채색도(C)를 의미하는 톤(tone)으로써 혼합비의 합은 100%이다. 색을 표기할 때 노랑(Y), 빨강(R), 파랑(B), 초록(G)인 4가지 기준색인 색상(Color)과 색상의 변화와 명암의 차이를 말하는 뉘앙스(Nuance)로 나타낸다.



<그림 2-1 > NCS 색상환과 NCS 색삼각형²⁴⁾

NCS 체계에서는 인간과 색채, 인간과 환경, 색채와 색채, 색채와 문화, 색채와 풍토 간의 유기적 상호 관련성을 인식하고 상대성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²⁵⁾ 따라서 색채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주변의 색과 사회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반응되어지며 인간의 감정에

24) <http://blog.naver.com/plusalpha7?Redirect=Log&logNo=130120770568> 검색일 : 2012. 11. 7.

25) 권영걸, 『색채와 디자인 비즈니스』, 서울 : 도서출판 국제, 2006, p.16.

의해 사회적 문화를 반영함으로 형성된다.

인간은 시각을 통해 80% 이상의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색채를 활용해 오고 있으며 문화적이나 사회적 차이에 따라 색채가 상징하는 의미도 다양하다. 색채에 대한 선호도는 나이·성별·성격·습관·환경·지리조건·경력·직업·시대·종교 및 신앙·전통문화·지역·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²⁶⁾

만약, 색채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면, ‘빛이 눈을 자극하여 만들어 내는 시각’ 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2. 전통색채의 개념

전통색이란, 한 지역에서 역사성을 갖고 발달해 온 색을 말한다. 색의 시각 발전 과정 중 문화적 영향과 메너리즘 단계가 바로 지역색이며 전통색을 형성하는 단계에 해당한다.²⁸⁾ 국가성, 민족성,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활 속에 더 깊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북구 지역에서의 의복은 청색이나 녹색이 쓰이는 경우가 많고 적도 지방에서는 적색의 선호가 뚜렷이 나타난다.²⁹⁾ 인도의 적색, 일본의 자색, 프랑스의 회색, 영국의 감색 등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민족성을 상징하는 색이다.

그 나라의 미술이나 건축, 국기 등에 반영되어 시각적으로 문화를 알게 해 주며 이런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녹아든 사상과 색채관념에 전반적인 이해가 밑받침될 때 진정한 전통색채라고 말 할 수 있겠다.³⁰⁾

26) 이주노, 김은희 역, 『색채와 중국인의 삶』,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p.20.

27) 상계서, p.17.

28) 이원신, 「한국 전통 색채를 이용한 컬러마케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p.3.

29) 조은영, 「색채감성의 국가별 분석과 한국인의 개인색채 유형에 따른 패션색채 기호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44.

30) 김하림, 「전통색채를 활용한 색채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4-5.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발전에 맞추어 “색(色)”이란 언어로 작용하여 국가의 특성을 말해 줌으로써 색채 문화가 형성되는데, 색채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 정치·경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나라의 지역성과 문화를 상징적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전통색이라 하겠다. 이처럼 전통색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생활에 어울리는 색으로 민족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예부터 현재까지 여러 분야에 애용되어 오는 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통색채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시각적으로 문화적 특성을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제 3 절 한국·중국·일본의 전통색채와 문양의 문헌적 고찰

전통색은 어떤 나라나 분야에서 예로부터 많이 사용 해 온 애용되고 있는 색을 말한다.³¹⁾

동양의 전통색채는 음양오행설을 많이 따르고 있다. 음양오행설의 기본 사상은 고대 중국에서 발생되었는데 이는 조화로운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의 순리를 담는데 목적이 있다.³²⁾ 또한, 그 나라의 사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중국·일본의 전통색채를 알아보고 문양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한국의 전통색채

한국의 전통색은 “백의 민족”이라는 흰색과 태극기를 상징하는 빨강과

31) 야마다 마미코, 「한국과 일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17.

32) 김수옥, 「한국미술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의한 색채 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8.

파랑을 우선으로 하여 단청과 색동저고리 색 등 무수히 많은 색이 있다. 이렇게 사용되는 색들은 문화나 사상, 자연환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인의 색채는 자연환경에 따라 유채색의 사용보다는 오행사상을 바탕으로 한 오정색(적, 청, 황, 백, 흑)과 오간색(홍, 벽, 녹, 유황, 자)을 사용하여 제한적인 색채를 사용해왔다.

백색과 청색지향이 강했으며 유채색보다는 백색을 숭상하여 한국인의 금욕적인 인격 지향의 인생관을 보여주기도 한다. 백색을 중심으로 한 색채 미의식은 한국인의 색채관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이 후 중국의 음양오행 사상과 더해져 한국인의 사회적, 문화적 여건과 어우러진 전통 색채관이 형성되었다.³³⁾

색채를 사용하여 장식화 한 것을 단청이라 하는데 주로 청, 적, 황, 백, 흑색의 오정색을 사용으로 건축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색채로 표현되는 장식은 장엄의 표현으로 시각적 효과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궁궐의 권위를 상징하여 민가에서는 금하고 사찰에 주로 사용했던 색이다.

한국의 색채는 음양오행설상사상을 근본으로 오방색과 오간색, 잡색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단청과 색동이 오방색의 조화를 이룬 색이라 할 수 있다.

오방색은 음양오행설의 기본으로 방향에 따라 색을 표시한다.

음·양설은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에도 모든 현상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듯이 한국도 오랜 시기부터 음과 양의 조화가 민족의 생활에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행설은 만물은 형성하는 다섯 개의 근본 성질을 의미하는 목(木), 화(火), 금(金), 토(土), 수(水)가 지니는 행동과 능력이 인간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상이다.³⁴⁾

한국의 전통색채는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샤머니즘 색채관이 컸으며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의식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황색을 중앙으로 하여 동쪽의 청색(봄), 서쪽의 백색(가을), 남쪽의 적색

33) 민지혜, 「침선구를 활용한 장신구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 전통색채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 NID융합 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37.

34) 상계논문, P.38.

(여름), 북쪽의 흑색(겨울)인 오행설은 우주관을 근거로 하여 방위나 계절로 표시해 주기도 한다.

적색(炙色)은 불의 색으로써 태양, 피 색을 뜻하며, 봉황을 상징하고 만물이 무성하여 생기 왕성함과 적극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질병과 액운을 쫓는 목적으로 주술적 표현을 나타냈으며 개인과 나라의 건강을 기원하는데도 사용되었던 색이다. 적색 계열로는 적색(炙色), 홍색(紅色), 다홍색(多紅色), 담홍색(淡紅色), 번홍색(礪紅色), 토홍색(土紅色), 연지색(臙脂色), 비색(緋色), 주황색(朱黃色), 분홍색(粉紅色) 등이 있다.³⁵⁾

조선시대에는 대홍과 다홍이라는 색이 최고 상위의 서열을 상징하는 색으로 서민들에게는 금지화 시키고 왕의 강사포와 곤룡포, 왕비의 적의에 사용되어 조선 왕권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청색(靑色)은 양기가 가장 강한 색으로 창조, 신생, 그리고 용을 상징한다. 또한 벽색과 녹색계로 구분되며 청렴결백한 선비의 색으로 간주되었다.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사용하였으며³⁶⁾ 영원을 기원하는 색으로도 사용하였다.

황색(黃色)은 오색의 중심으로 태양광선이나 신의 힘을 상징한다. 그리 귀한 색은 아니었으나, 성스러운 표현을 가지고 삼국이 통일한 시기부터 황색 금제를 사용함으로써 고귀한 색으로 인식되어졌다.

흑색(黑色)은 거북과 소생을 상징하며 만물의 변화를 뜻한다.

또한, 암울한 색채를 상징하고 있다.

은밀하고 현묘함을 나타내며, 만물의 생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지는

35) 김민희, 「전통복식에서 나타난 홍색과 홍화에 의한 전통염색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37.

36) 이정윤, 「전통색채를 바탕으로 한 색채표현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13.

색이기도 하다.

백색(白色)은 해태를 상징하며, 순백색으로 혼색이 없으며 순결, 결백, 신성을 의미하여 우리민족이 즐겨 입던 옷의 색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이 백색을 사용했던 유래는 절제와 無의 아름다움을 존중했던 유교사상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³⁷⁾ 순수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내면의 고결함이 서려있으며 색에 있어서의 근본으로 탄생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 본연의 의지를 담아 갓난아이의 배넛 저고리에 사용해 오는 색이기도 한다.



<그림 2-2> 오방정색 ³⁸⁾

오간색은 오방색의 중간색으로써 녹색, 벽색, 홍색, 자색, 유향색을 뜻한다. 녹색은 청황색으로 동방의 간색이고, 벽색은 청백색으로 서방의 간색이고, 홍색은 적백색으로 남방의 간색이고, 자색은 적흑색으로 북방간색이고, 황색은 황흑색으로 중앙 간색이라 하여 이를 오방간색이라 한다.

잡색은 오방색과 오간색을 다시 70색으로 세분화했을 때 나타내는 색을 말하며, 자연현상과 식물, 동물 등 사물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단청은 붉고 푸는 빛깔로 나타내는데, 오채색의 색채를 서로 배합하여

37) 우석진, 전게서, p.2-72.

38) <http://myshelter.kr/zbxe/lecture3/97044> 검색일 : 2012. 9. 22.

목조 건축이나 건조물에 채색무늬나 그림을 그려 장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³⁹⁾ 이는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불교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색동은 오방색을 중심으로 배열된 색을 말하며 건강과 화평을 기원하는 색이다. 가시화 하는 무당의 옷으로 사용되었으며 주술적 능력을 내포하여 액땀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 오방색을 이어 붙였다는 유래가 있다.

색동은 명절이나 혼례 때 입는 색동저고리나 현대에 색동의 색채를 활용한 아시아나 항공을 연상시켜 주기도 한다.

2. 중국의 전통색채

중국은 생활습관과 생화환경의 영향이 있어서 상징적이며 계급의 색채 사용을 하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음양오행설이 중국 전통사상의 규칙을 형성하며 오방색은 고귀를 상징한다. 청, 적, 황, 백, 흑색은 오행을 상징하며 청백사이의 벽색과 적흑색 사이의 자색, 굴황색 등 간색으로 비천을 상징하였다.⁴⁰⁾ 음양오행설은 음과 양의 조화를 강조하는 세계관으로서 상호 보완적이며 우주만물의 근본이자 발생과 소멸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절과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오행사상과 결합된 오색은 색과 방위를 오행에 맞추어 중앙과 사방을 기본으로 삼아서 오방과 오색이 설정되었으며 중간에 많은 색조가 생성되는데 이를 간색이라 한다.

오색은 혼합해서 받을 수 있는 색채가 아니며, 이것을 혼합하여 여러 가지 간색을 받을 수 있고, 권위와 존귀를 상징한다. 간색으로는 녹색, 황색, 벽색, 보라색, 유황색이 있으며, “녹색은 청황[綠, 靑黃地]”의 간색이고, “홍색은 적백[紅, 赤白地]”의 간색이며, “벽색은 백청[碧, 白靑地]”의 간색이고

39) 이지은, 「한국사찰 단청 문양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 인타사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p.5.

40) 서주환, 「한·중 전통을 주제로 한 가로경관 색채비교연구 : 서울 인사동, 상해신천지(新天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14.

“보라색은 흑적[紫, 黑赤地]”의 간색이며, “유황색은 황흑[騮黃, 黃黑地]”의 간색이다.⁴¹⁾ 오행의 정색은 5가지 색으로써 푸른색은 동쪽, 빨간색은 남쪽, 불이 흠을 낳는다하여 노란색은 중앙, 하양색은 서쪽, 검은색은 북쪽을 의미한다. 정색은 사물을 상생하게 하고 서로 촉진한 결과임에 반해, 간색은 사물을 상극하게하고 서로 충돌·배척한 결과라는 것이다.⁴²⁾ 이렇듯 정색과 간색은 오행설로 자연현상과 관련이 깊으며 오방색은 중국인의 생활문화를 형성하여 생활 속에 법칙과 같은 깊이 있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홍(紅) - 남방, 여름, 火

중국인에게 있어서 홍색은 액운을 막아주고, 길조와 경사를 상징하여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다. 중국인의 색채습속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생명의 연장이라고 믿기도 하며 액운을 피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음으로써 민간 사회에서 예복의 색으로 삼기도 했다. 궁궐이나 사찰 뿐 아니라 현대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으며 생명과 열정을 상징하는 의미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의 바탕에도 쓰이고 있다. 이렇게 홍색은 중국인에게 현재에도 쓰이고 있는 태양을 숭배하는 색깔로서 시대의 색깔이기도 하다.

황(黃) - 중앙, 계하(季夏), 土

고대 중국에서부터 하늘을 상징하고 숭상하기 위하여 황색을 귀하게 여긴 존귀함의 색깔이다. 이런 하늘의 신앙심이 퇴색되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의상에 사용할 정도로 낮은 색으로 전락하기도 했으나, 오색 중 중심의 색으로 황제만이 사용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황제의 색으로 존귀한 색이다. 황인종이었기에 노란색을 숭배했다는 설도 있고 중화의 색깔로 정색 중에서 중앙에 있다고 하여 가장 으뜸이라 여긴 색이다.

백(白) - 서방, 가을, 金

41) 이주노, 김은희 역, 전계서, p.66.

42) 상계서, p.69.

순결의 색깔로 절개가 굳은 여성을 청백(淸白)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옛 중국인은 상사(喪事)나 상복의 색으로 여겨 불길함을 상징한다 하여 명절이나 경사스러운 일에는 금기시했던 색이다. 부모가 살아생전에는 의복과 모자는 착용할 수가 없었으며 장래복으로만 사용하여 흰색을 죽음의 색이라 하여 경계했던 색이다.

흑(黑) - 북방, 겨울, 水
신비로움을 주는 색이다.

허신의 설명에 따르면, 흑색이란 불길이 굴뚝을 지나면서 남겨 놓은 색깔, 즉 그을음이 만들어 낸 색깔⁴³⁾이라 하여 제일 어두운 색을 말한다. 진이나 한나라 초에는 정색으로 여겨 검은색을 숭상하기도 했으나, 지옥을 상징하여 불길한 조짐으로 여기는 색이기도 하다.

청(靑) - 동방, 봄, 木
생명을 의미하며 온화한 봄을 상징해 준다. 중국의 도자기에서 볼 수 있듯이 청자의 색채에 많이 쓰인 창조적인 색깔이다.

3. 일본의 전통색채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은 각기 다른 풍습과 충분한 자연환경으로 생활의 정취와 기호를 즐길 줄 알았다. 자연의 혜택이 넘치는 일본은 한국과 중국과는 다른 색채경향이 나타난다. 따뜻한 기후로 인해 초록의 녹색과 형형색색의 꽃으로 화려한 색채를 표출하고 있다.

녹색을 중심으로 황(黃), 적(赤), 자(紫), 청(靑), 백(白)의 다양한 배색으로 보여 지는 다채로운 색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화려한 황금색을 사용하

43) 이주노, 김은희 역, 전게서, p.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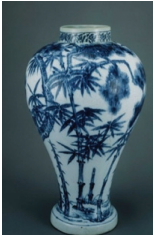
였으며, 적(赤), 자(紫), 청(靑), 차색(茶色)의 자연색을 기본으로 하며 차(茶), 감(甘), 남(藍) 등의 차분하면서도 가라앉는 듯 한 저채도의 무채색을 사용하였다.

녹색은 파랑을 의미함으로써 일본을 둘러싼 바다를 상징하며 자연의 색을 말한다. 빨강, 백색, 검정은 주술적인 의미가 강하여 평화나 신성함을 상징하고 있다.

4계절의 자연색에서 나타나는 다채로운 색상도 풍부하게 표현되어 색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봄이 되면 가벼운 연두를 초두로 살을 찌우고 여름이 되면 초록의 깊이를 더하고 가을이 되면 황색으로 색을 얹게 하고 겨울이 되면 시들고 말라 그 색을 떨어뜨리는⁴⁴⁾ 4계절에 의한 자연의 색을 시간에 흐름에 따라 색감으로 보여주어 색을 다채로운 색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미묘한 색의 겹침으로 나타나는 색의 깊이는 저채도의 무채색으로 일본의 가장 대두되는 색상으로써 부드러운 멋을 보여준다. 색이 겹치면 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일본은 빛바랜 듯 한 무채색에서 깊은 멋을 느꼈다. 이렇게 일본의 전통색은 선명하고 화려한 원색보다는 색이 겹치는 듯 한 얹은 무채색에서 오는 깊은 색조의미를 즐겨 사용하였다.

44) 김화숙, 「기모노에 내재된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에 관한 고찰」, 단국대학교 대학원 일본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p.85.

색채 국가	전통 색채	문화예술에 표현된 색채관
한국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오정색과 오간색 사용 	- 주로 백색과 청색지향 - 단청과 색동의 조화를 이룸  
중국	 	붉은색과 황색 지향  
일본	- 녹색을 중심으로 한 황, 적, 자, 청, 백의 다채로운 색 - 화려한 황금색 	- 빛바랜 듯 한 무채색 - 차분하고 가라앉는 듯한 저채도의 색조  

[표 2-1] 나라별 전통 색채

4. 한국 · 중국 · 일본의 전통문양의 특성

문양이란 한마디로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점이나 선, 색채를 도형과 같이 형상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⁵⁾

문양(Pattern)은 장식을 목적으로 표면에 나타낸 형상이며, 형체(Form), 색조(Color combination)와 함께 미적 표현의 삼요소라 일컬어진다.⁴⁶⁾ 그래서 회화나 건축, 공예품 등의 양식화 된 형태로 장식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문양은 넓은 의미로 무늬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어 창조된 예술이라 할 수 있으며 삶을 통한 문화 활동의 소산이자, 조형미술의 근간으로써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행위임을 알 수 있다.

문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의 현상과 사물의 형태를 모방하여 그림으로 표현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각 시대의 지역과 민족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형성의 원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문양은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이 감상을 목적으로 나타내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쓸모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 하겠다.⁴⁷⁾

원시신앙의 숭배로 시작하여 종교적으로 상징화가 되었으며 공예나 미술, 건축 등을 대상으로 지역적, 시대적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어떤 상징에 의해 생겨난 문양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 대상에 맞는 양식으로써 그 나라와 민족의 특별한 양식으로 구성되어 진다. 같은 종류일지라도 그 시대에 맞는 특성을 지니게 되며 독특한 시대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양은 공예나 미술, 건축 등의 조형적 예술의 원천으로 의사전달의 수단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민족의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여 인간의 미의식을 표현하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반영되어지는 표현 양식인 것이다.

45) www.culture.go.kr 검색일 : 2011. 12. 7.

46) 장혜선, 「한국전통색채와 문양을 활용한 네일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서경대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35.

47) 전진영, 「韓·日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비교 연구 : 16C~18C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 p.4.

지역 환경이나 민족성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지닌, 그 시대의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온 것을 전통문양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부각화하여 장식화에 불과하다. 자연을 소재로 하여 기하학적이고 순박한 기원을 담고 있으며 민족의 의식세계를 내포하여 문명이 발달 하면서 전통문양은 모든 조형물의 모티브로 삼아 미를 추구하는 생활양식으로 차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민족의 미적 감각으로 인해 창조되어 다른 나라와 구분 짓게 하는 일종의 그림언어로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며, 한 민족이 살아온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의미와 상징성을 갖는 시각적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통문양은 민간신앙을 내포하여 주술성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박쥐문양은 복을 상징하고 나비는 부부금슬을 상징하여 장신구나 가구에 많이 쓰이는 문양이다. 소박한 생활욕구로 예술적 욕심 없는 조형적 가치를 구현하였고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자연물과 동,식물을 소재로 표현 하였으며, 사물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해학적인 느낌도 주고 있다. 상상속의 사물을 연상케 하여 현실적 욕망을 담아 성취와 염원을 표현하는 주술적 성격이 강하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전통문양은 자연주의적 성격과 유교이념으로 인해 장수, 다남, 다복의 길상적 의미로 표현되며 추상화 된 형태의 조화로움을 중시하였다. 반면에, 중국의 전통문양은 사실적인 형태와 정형화 된 배치를 통해 디테일하면서도 균형미를 중요시 하였다. 일본의 전통문양은 한국과 중국과는 다르게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문양이 특징적이며 양식화 된 형태로 일본만의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다.

단순히 감상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기원을 담은 주술적 대상으로 또는 그런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 구실을 하고 있는 상징적 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다.⁴⁸⁾ 인류 문화에 대한 특성을 잘 살려서 미의식을 반영한 전통문양은 자연문, 상징문, 종교, 장식 등에 따라 전통문양이 분류되어 진다.

48) 이가, 「전통문화와 전통문양의 재현에 관한 연구 : 중국과 한국의 전통주 외(外)포장 디자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32.

전통문양의 분류는 문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문양의 형태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식물문양, 동물문양, 기하학적 문양 및 기타 문양에 따른 분류를 적용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네일 디자인에 응용하기 위한 실용적 문양을 제시하기 위해 문양의 형태 중 한국, 중국, 일본의 식물문양과 동물문양의 대표적인 문양과 일본의 대표적인 기타문양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가. 식물문양

식물은 아름다움의 형상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조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문양의 소재로써 좋다. 특히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꽃은 장식소재로 좋으며 그중에서도 연꽃과 덩굴의 당초문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덩굴문은 장수와 좋은 일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의미를 갖으며 연꽃과 국화와 같은 꽃무늬와 더불어 화려한 느낌을 주어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되어져 왔다.

(1) 당초

당초문양은 식물의 형태를 본떠서 디자인화 시킨 장식문양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으며 원래 당풍(唐風) 또는 이국풍(異國風)의 덩굴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⁴⁹⁾ 중국 당나라 풍의 덩굴무늬란 뜻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로 퍼져 조형예술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꽃과 줄기가 얽혀있는 당초문은 꽃문양을 연결하거나 다른 문양을 연결하여 독특한 당초문양을 만들어 준다. 그리스 미술에서 비롯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양으로 인동초(忍冬草)라고도 부른다. 인동초는 겨우살이 식물로 중국 등지의 산악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덩굴이 끊임없이 뻗어간다 하여 연면(連綿)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49) 최충식 역, 『한국전통문양의 이해와 응용1』, 서울 : 창지사, 2006, p.429.

한국은 당초문의 기본형으로 삼국시대 고분벽화에서도 볼 수 있으며 여



<그림 2-3> 청자 상감국화모란당초문 50)



<그림 2-4 > 당초문 51)

러 식물문의 독특한 표현 양식으로 등장하였다. 시대마다 나타나는 표현을 보면, 단순하면서도 세련미가 있고 화려하지만 서민적인 소박한 미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덩굴형 식물문양의 총칭으로 사용했지만 중국에서는 만초문과 일반 화훼문양에서 사용된 곡선미가 강조된 식물문양을 구분해서 사용해 왔다.⁵²⁾ 일본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있었지만 독자적인 문양으로 덩굴식물을 모티브로 한 당초가 있다. 덩굴이나 줄기를 꽃과 접목시켜 복잡한 화당초가 있는데 장수와 자손 번창의 의미를 상징한다.

(2) 모란

모란은 부귀를 의미하며 화려함으로 인해 여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사용하던 문양이다. 모란은 목단(牧丹)이라고도 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꽃으로 귀족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모란꽃 문양은 연꽃 문양보다 약 천년 후에 나타났으며, 당 이후에 모란이라고 불리워졌다. 당나라

50) <http://cafe.naver.com/historyexam/49900> 검색일 : 2012. 11. 7.

51) http://arts.search.naver.com/service.naver?where=arts_detail&query=%B4%E7%C3%CA%B9%AE%C0%E5%BD%C4%B6%EC&os=688173 검색일 : 2012. 11. 7.

52) 부산산, 「한국과 중국의 전통문양에 대한 비교 연구 : 유사문양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조형예술석사학위논문, 2008, p.24.

때 크게 번성하여 번영의 꽃으로 미호(美好)와 행복을 상징하기는 했으나 송나라 때부터 부귀의 상징물이 되었다.

모란은 굽은 뿌리 위에서 새싹이 돋아나므로 수컷의 형상이라 하여 모(牡), 꽃 색이 붉어 란(丹)이라고 하는데 색상은 홍자색·백색·홍색·담홍색·주홍색·자색·황색 등 다양하다.⁵³⁾ 조선시대 민화에서 많이 사용하였으며 부귀를 상징하여 화려한 그림을 통해 병풍이나 혼례용 활옷에 장식한 수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궁중이나 사대부, 일반 가정에까지도 구별 없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연꽃과 더불어 화목과 번영의 길상적 의미를 더해주며 도자기나 실내 공예 의장에서도 볼 수가 있다. 모란은 연꽃무늬



<그림 2-5> 청대 모란문 청화백자 ⁵⁴⁾



<그림 2-6> 칠기공예의 모란문 ⁵⁵⁾

와 함께 표현되기도 하지만 다른 꽃들에 비해 훨씬 곡선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서 단독무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겹의 꽃잎을 겹쳐 울동적인 선이 다양한 장식의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다.

회화, 자수, 공예품 등에 사용되었으며 장미꽃과 함께 배치하여 부귀장춘(富貴長春)의 의미와 신선부귀(神仙富貴)의 의미로 수선화와 같이 표상하기도 했다. 이런 모란문양은 한·중·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지만 차이점은 있다.

53) 최충식 역, 전게서, p.355.

54) <http://blog.naver.com/blancdechene?Redirect=Log&logNo=150144234283> 검색일 : 2012. 11. 7.

55) <http://blog.naver.com/sang40?Redirect=Log&logNo=70129562618> 검색일 : 2012. 11. 7.

한국에서는 모란의 화려한 특성으로 인해 화목을 바라는 의미로 혼례용품과 장신구에 사용하였으며 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도자기에도 사용하였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부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화려하고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어 회화, 공예 등의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한국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성을 표현한 직물에 많이 사용하였다. 일본 또한 직물 무늬로써 예복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단독무늬보다는 모란과 당초무늬의 조화를 시켜 화려하고 입체적인 묘사를 하여 복식과 공예품에 길상무늬로 사용하였다.

(3) 매화

매(梅), 난(蘭), 국(菊), 죽(竹)의 사군자 문양에 속하는 매화(梅化)는 가을과 서쪽을 나타내어 고려시대부터 정립되어 왔다. 유교적인 선비사상으로 굳은 의지와 높은 품격의 충절을 의미하며 높은 절개와 순결을 상징하고 있다.

매화가 보춘화(報春花)란 별명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 꽃이 겨울이 끝나고 봄이 문턱에 올 즈음에 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⁵⁶⁾ 매화는 대나무와 함께 그려지는데 이것은, 대(竹)는 남편을 상징하고 매화는 아내를 상징하고 있으며 쾌락과 행복, 장수와 순리, 절개라는 오덕(五德)을 지니고 있어서이기 때문이다.

5장의 꽃잎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며 간결화한 도안으로 꽃은 듽성듬성 표현하고 있다.

한국은 여백의 미를 살려 얹매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기교를 보여주지만, 중국은 어지럽게 표현된 줄기에 꽃송이를 가득 메워 웅장하면서도 섬세함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매화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품위를 갖고 이국

56) 최충식 역, 전계서, p.125.



<그림 2-7>청화백자 매
화무늬 병
57)



<그림 2-8>매화무늬 조끼
58)

정취가 물씬 풍기는 문화적인 꽃으로 등장하여 봄이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을 찾는 현대적인 꽃으로 사랑 받은 꽃 중의 하나이다. 처음엔 사원에서 사랑을 받았으나 점차적으로 일본 문화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는데, 지조 있는 상징정보다는 계절의 모티브 성격이 더 강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동그란 꽃잎 다섯 개로 표현된 것이 일본 매화의 특징이며 기하학적으로 배열한 형태를 하여 회화적인 표현을 담아 도자기나 직물무늬로 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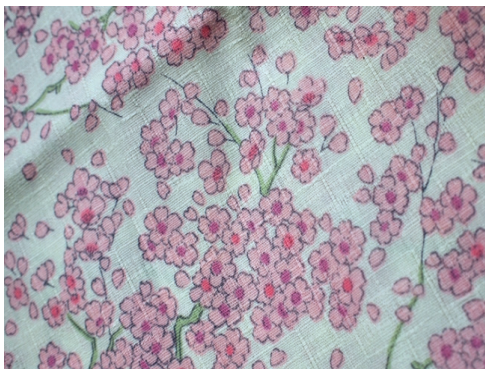
(4) 벚꽃

사쿠라(さくら)의 ‘사(さ)’는 곡령(穀靈), ‘라(ら)’는 신좌(神座)로서 곧 눈의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앉는 자리라는 뜻에서 꽃이 피는 모양에 따라

57) <http://kin.naver.com/qna/detail.nhn?dclid=13&dirId=130102&docId=157905257> 검색일 : 2012. 11. 7.

58) <http://blog.naver.com/minamur0?Redirect=Log&logNo=10138636049> 검색일 : 2012. 11. 7.

그 해의 농사길 흉을 점쳤다고 한다.⁵⁹⁾ 이와 같은 유래가 있는 벚꽃은 일본의 봄을 상징하는 꽃으로써 일본의 대표적인 무늬이며 작은 벚꽃, 8겹 벚꽃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일본 복식에 자주 사용되는 무늬이다.



<그림 2-9 > 벚꽃무늬 보자기⁶⁰⁾



<그림 2-10> 벚꽃무늬 원단⁶¹⁾



<그림 2-11 > 벚꽃무늬 부채⁶²⁾



<그림 2-12> 벚꽃무늬 우치카케⁶³⁾

59) 전진영, 전개논문, p.49.

60) <http://neoboori.blog.me/110147502669> 검색일 : 2012. 11. 7.

61) <http://blog.naver.com/ukiana3?Redirect=Log&logNo=10138084823> 검색일 : 2012. 11. 7.

62) <http://cafe.naver.com/cosmania/4253976> 검색일 : 2012. 11. 8.

63) <http://blog.naver.com/minamur0?Redirect=Log&logNo=10115304250> 검색일 : 2012. 11. 8.

(5) 포도

포도문이란 결국 포도당초문(葡萄唐草文)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미술 양식이 중국, 한국, 일본에 전해진 것은 8세기경으로 중국 당(唐) 시대에 인도(印度)의 금공미술(金工美術)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짐작된다.⁶⁴⁾

또한, 포도는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앙과 관련되어서 오래전부터 성스러운 과일로서 숭상되었⁶⁵⁾으며 그리스 로마시대 때는 미술이나 기독교 의식을 가지고 생명수와 낙원을 상징화 하여 종교적인 색채를 표현하기도 했다.



<그림 2-13 > 조선시대
포도그림⁶⁷⁾



<그림 2-14 > 철화백자 포도문⁶⁶⁾

한국 조선시대의 포도문양은 궁궐의 꽃담이나 도자기, 가구 등에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화가들의 관찰로 인해 생생하게 묘사된 포도그림은 병풍이나 기와, 술병 등에서 볼 수 있고 조선전기에 왕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행했다. 특히 수목 담채로 그려져 먹의 농담으로 그린 기법과 백자나 칠

64) 최충식 역, 『한국전통문양의 이해와 응용2』, 서울 : 창지사, 2006, p.11.

65) <http://terms.naver.com/entry.nhn?dcoId=631431&mobile&categoryId=1125> 검색일 : 2012. 11. 7.

66) <http://blog.naver.com/chojpnw?Redirect=Log&logNo=130113835103> 검색일 : 2012. 1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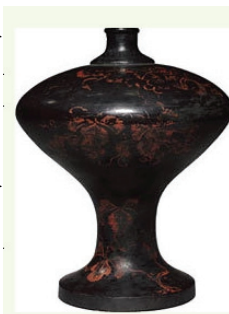
67) <http://blog.daum.net/mchjun/462> 검색일 : 2012. 11. 8.

기 등에 나타난 포도송이는 사실적 느낌과 회화적으로 표현되었다.

인동당초문과 혼합된 포도문은 화려한 장식문양으로 사찰이나 궁궐, 기와에 많이 쓰였다. 덩굴은 장생을 의미하며 주렁주렁 달린 포도송이는 다산(多産), 다복(多福)을 의미하고 있어 매우 사실적이고 회화적인 형태의 길상문양이다.

중국에서는 당대(唐代)에 전성기를 이루며 포도당초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명대(明代)에 가서는 사실적인 문양으로 표현하여 공예품의 장식에 나타나고, 청대(清代)에는 포도와 다람쥐를 함께 표현한 무늬를 민간인들이 즐겨 사용하면서 상류층의 고급직물로 활용하였다.

일본의 나라(奈良)시대(天平:729~749)에는 가죽에 포도당초를 눌러 찍어 나타냈으며 가마쿠라(鎌倉)시대에 제작된 ‘포도문양 칠기 술병’<그림 2-15>이 있다. 흑색 바탕에 주색 으로 그린 그림은 포도와 포도주의 결합을 묘사한 칠기이다. 에도(江戸)시대 이후 염색과 직조에 정교하게 활용 하면서 포도문양이 일반화 되었다.



이렇듯 포도는 공예품 장식에 활용되어진 문양임을 <그림 2-15 >⁶⁸⁾ 알 수 있다.

나. 동물문양

한·중·일의 동물문양을 살펴보면, 실존하는 동물이나 상상의 동물로써 장수를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문양이다. 많은 무늬가 있지만 평민층에는 사용을 금기시한 임금의 권위와 상징을 내포한 용문양과 봉황문양, 학 문양을 살펴보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8) <http://blog.daum.net/mchjun/462> 검색일 : 2012. 11. 7.

(1) 용

중국 고대사회 때 토렘으로 시작하여 중국 수당시대에 정형화로 이루어진 용문양은 조형예술에서부터 예술전반에 사용하였으며 장식된 문양을 통해 상징성을 갖고 있다. 용은 상상의 동물로써 민간 신앙에서는 힘의 원천으로, 불교에서는 벽사신으로, 왕좌에서는 왕의 수호신이라는 여러 가지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양에서 용은 구름 속에 반쯤 감추어진 운룡(云龍)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용의 신비하고 영험한 능력을 표현한 것이다.⁶⁹⁾

한국에서의 용문양은 풍요와 안전을 위해 수신으로 삼고,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여 장식문양으로 활용하였으며 생활용품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길상의 문양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이 컸기에 주로 불교 조형물에 많이 등장하여 호법룡이라고도 하며, 과거급제의 상징이기도 했다. 고귀한 존재로 왕실에서만 사용된 무늬로 왕의 얼굴을 용안(龍顔)이라고 하고 덕을 용덕(龍德), 지위를 용위(龍位), 앉는 걸상을 용상(龍床), 그리고 의복을 용포(龍袍)라 하여 왕을 용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렇게 용문양은 조형예술에서부터 예술 전반에 새겨진 문양으로 인해 그 상징성 또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범위한 이미지로 건축물의 장식이나 공예품, 회화에 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다.

중국의 용은 용(龍), 기린(麒麟), 봉황(鳳凰), 거북(龜)의 사령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동물로 중국 당(唐)대부터 사용했으며 청대에는 조형상이 가장 풍부하게 나타났다. 중국 당(唐)대부터 사용한 용문양은 엄격한 규제에 황제 예복에만 장식되었는데 온몸을 지나가는 큰 용의 전신룡과 한 벌에 192마리가 수(繡) 놓아질 정도로 많은 용의 장식이 있기도 했으며 발톱수를 달리하여 계급을 구분하기도 했다. 또한, 주로 황금색 실로 수놓아진 용문양이 더욱 정교하고 세심하게 제작되어 황제의 복식을 장식화 하기도 했다.

공포감과 더불어 환상을 주는 강렬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동물로 신의 권

69) 푸산산, 전계논문, P.27.

위를 상징하고 있는 용은 기이하면서도 엄숙한 미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권위와 물의 신을 상징하고 단독사용이 많으며, 중국에서는 단독형과 쌍형으로 황제의 전용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황제의 예복에는 물론 용봉이 그려진 유화자기에서도 볼 수 있으며 황제의 궁전에 기와 같이 장식문양으로도 사용하였다. 불교의 조형물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왕족의 장신구류와 민간 신앙 차원에서도 생활용품이나 외복, 민가의 집 내부에도 사용되었고 건축물의 지붕 끝을 장식하여 악귀를 쫓고 화재를 막는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일본 또한 천자(天子), 군왕(君王)을 상징한 신령한 동물로 존엄을 뜻 하



<그림 2-16 > 용문양의 왕실 옷⁷⁰⁾ <그림 2-17 > 중화전 내부의 용⁷¹⁾

여 황실의 권위를 상징하여 서민층의 생활용품에서는 찾기 힘든 문양이며 비와 구름의 신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용문양이 공예품과 건축물은 물론 회화의 소재로도 사용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어 현대의 용문양 특징을 분석해보았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용문양의 빈도수가 높는데 현대에 와서 풍요로움을 기원하기 위해 금색과 적색을 사용한 심벌마크로 큰 차지를 하

7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439913&imageNo=1&categoryId=3460> 검색일 : 2012. 11. 8.

71) <http://blog.daum.net/airport99/1080> 검색일 : 2012. 11. 8.

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민화나 유물에서는 지배층의 상징으로 사용했으나 자연주의적 특성으로 인하여 현대의 문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반면에 일본은 자국문화와 결합시켜 여러 형태와 색채로 표현하여 시대적인 감각을 구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봉황

봉황은 기린과 거북, 용과 함께 영원한 동물의 하나로 아름답고 신령의 물질로써 중국인이 만들어낸 상상의 동물이다. 고대 중국의 『산해경(山海經)』에 따르면 봉황의 생김새는 닭처럼 생겼지만 5색의 깃털무늬를 지니고 울음소리는 5음을 내며, 오동나무에 깃들이고 대나무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상서로운 새로써⁷²⁾ 덕(德), 의(義), 인(仁), 신(信)을 갖추었다고 한다. “봉”의 수컷, “황”의 암컷으로써 “새 중의 왕”으로 여겨지며, 고귀하고 상서로운 뜻을 지닌 새로 천자의 궁문에 봉황을 장식하면 천하태평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여 궁궐문양이나 중국 황후복에 많이 사용하였다. 봉황은



<그림 2-18> 봉황문 홍배⁷³⁾



<그림 2-19> 금제봉황 머리꽃이⁷⁴⁾

72) 김현진, 「동북아시아지역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 개발 연구 : 한국·중국·일본의 16~19세기 복식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2.

7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7224&imageNo=1&categoryId=1645> 검색일 : 2012. 11. 8.

74) <http://cafe.naver.com/chonhyang/59> 검색일 : 2012. 11. 8.

여인들이 놓던 수의 소재로도 사용되어 민간의 민예품에 사용되었으며 그림의 소재와 다양한 기물에 나타내어 생활 속의 고귀함을 상징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의 봉황은 경사와 안녕, 고귀함을 상징하였고 전설의 동물이지만 사실적으로 시각화하여 단순화 시킨 형태를 추구하였다. 자연소재와 더불어 주변의 생활에까지 다채로운 변화를 주는 게 특징적이다.

예술인들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봉황문양은 장식 예술의 독특한 매력으로 중국의 민족문화 상징의 하나로 만들어 아름다움의 화신으로 여겨왔으며, 봉황이 나타나서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있는 중국 고대에는 성군(聖君)의 덕치(德治)를 증명하는 징조로 봉황이 등장하고 있다.⁷⁵⁾ 왕실의 물건에 많이 썼으며 민간에서는 혼례 때 원앙을 대신 표현하기도 하였고 주로 원삼, 활옷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⁷⁶⁾

(3) 학

신선들이 타고 다닌다고 믿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의 학은 불로장생에 대한 옛 사람들의 의지와 갈망을 구체화시켜서 보여 주고 있으며, 황색, 백색, 적색, 흑색의 4종류가 있다. 천년 만에 푸른색으로 변하여 청학(靑鶴)이 되고, 다시 천년이 되면 검은색으로 변하여 현학(玄鶴)이 되는 불사조(不死鳥)라 믿었다.⁷⁷⁾ 지금의 지리산 청학동은 청학이 살고 있다고 전해진 유래에서 불리워진 말이다.

조선시대 때 회화나 공예품에 많이 사용된 십장생 중의 한 문양으로써, 봉황 다음으로 높은 새이며,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점잖은 군자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새들 중의 일품의 새로 우러르고 있다. 또한 관복 흉배에 수를 놓아 관직과 연관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학수천년(鶴壽千年), 송수만년(松樹萬年)이라는 장수와 행복

7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7224&mobile&categoryId=1645> 검색일 : 2012. 10. 16.

76) 전진영, 전계논문, p.13

77) 김현진, 전계논문, p.13

을 상징하고, 미술품이나 공예품에 잘 등장하여 조형 미술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일본 역시 장수와 길상문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본만의 양식으로 재창조하여 봉래사상(蓬萊思想)⁷⁸⁾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학은 구름과 소나무와 함께 그려져 구름사이로 날고 있는 학을 운악문이라 하고, 소나무와 학을 그린 송학도가 있으며 십장생 문양에도 학이 등장한다.



<그림 2-20 > 학 문양 ⁷⁹⁾

(4) 해치

일명 해태라 알려진 해치는 뿔을 하나 가진 양을 닮은 상상의 동물로, 태평성대의 길상적 의미의 대표적 동물이다.

사람의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신령스러운 재주가 있고 성군을 도와 현명

78) 봉래사상(蓬萊思想)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부터 존재한 삼신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의 신선봉래사상은 불로불사와 영원한 변영의 뜻으로 선인이 산다는 봉래를 뜻한다. <http://www.kansai.gr.jp> 검색일 : 2012. 11. 7.

79) <http://blog.naver.com/rokmc9378?Redirect=Log&logNo=60173043463> 검색일 : 2012. 11. 8.

한 일을 많이 했다⁸⁰⁾고 하며 선악을 분별하여, 정수리에 달린 뿔은 잘못된 사람을 받아 버린다는 정의로운 뜻을 가지고 출현한 동물이다.

정의의 심판으로 수호신이라는 길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유래된 해치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기 다른 형태와 의미도 다르다. 중국에서는 사자상으로 발달하여 벽사의 신으로, 일본에서는 개와 사자의 중간형상인 신수로 발달하여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해치는 머리에 있는 뿔이 하나 있으며 원형의 돌기와 소용돌이 문양으로 장식되어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부드러운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로 궁궐이나 경계지점에 많이 있다.

한국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동물의 해치는 궁궐이나 공원, 박물관 서울의 경계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19세기에 조각한 해치상을 경복궁



<그림 2-21 > 해치 상⁸¹⁾



<그림 2-22 > 서울상징 해치⁸²⁾

광화문 앞에서 볼 수가 있다. 이는 정의의 동물로써 궁궐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적인 의미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해치는 명·청대에 들어와 민간사회를 중심으로 사자가 강조되면서 그 의미와 상징적 역할이 해치에서 사자로 이동하게 된다.

80) 박연진, 「한국 길상 문양의 조형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 김환기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60.

81) <http://blog.naver.com/shadowbabo?Redirect=Log&logNo=20138187236> 검색일 : 2012. 11. 8.

82) <http://www.seoulcitybus.com> 검색일 : 2012. 11. 8.

일본의 해치는 한국 고구려의 개 이미지와 합쳐지면서 개에 가까운 형상을 가진 고마이누라 불리는 독특한 신수(神獸)가 발생⁸³⁾되었다. 이처럼, 한·중·일 문화권에서 등장하는 동물은 토테미즘이라는 민간사상과 관련하여 주술적 의미로 실존 동물이나 상상의 동물이 등장한다.

한·중·일 생활 문화에서 신수의 의미를 갖고 활용해 온 해치는 각기 다른 의미와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영물스럽고,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신령스러운 재주가 있어 성군을 도와 현명한 일을 많이 하였다고 전해진다.⁸⁴⁾

또한, 해치는 목에 방울을 달고, 머리에 달린 뿔과 비늘로 되어있는 몸, 어금니 두 개를 보이고 있는 눈, 코, 입이 큼직한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궁궐이나 공공기관 등에 조각된 해치상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으며 정의의 심판자, 수호신, 재앙을 물리치는 벽사신, 길상의 의미를 갖고 사용되었다.

중국에서의 해치도 상서로움을 의미하며, 숭배의 대상으로 액운을 물리치는 의미와 황제를 지킨다는 수호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 형태도 바뀌어져 갔는데, 명·청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자상으로 변용되어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어 좀 더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예술작품에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서민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조각상이다.

일본에서의 해치는 불교사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개와 사자의 형상을 한 ‘고마이누’라는 신수(神獸) 조각상이다. 중국의 해치와 비슷한 형상으로 목재나 석재 등을 사용하여 지역에 따라 다양한 짐승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한·중·일 해치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부드러운 이미지로 근엄한 상상의 동물로 다양한 조형적 특성을 살리고 있으나, 중국은 사자로 변용되어 길상의 의미를 지니면서도 장식적

83) 김은정, 박재인, 「서울상징 해치가 가지는 의미와 특성」, 연세대학교대학원 생활디자인 석·박사 학술지논문, 『한국디자인포럼』 Vol.25, No.-,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p.86

84) 상계논문, p.86.

이고 친근한 특성을 갖는다. 반면에 일본은 개와 닮은 사자 형상을 띠고 있으며 고유의 해치 상에서 벗어나 실재 존재하는 동물 형상으로 발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5) 십장생

십장생 문에 등장하는 자연물은 한국인의 정서를 전승하고자 하는 의식 구조에서 표현되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물이며, 불로장생의 소망을 빌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 상상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10가지의 복합문양으로 해, 구름, 산, 불로초, 소나무, 돌, 학, 사슴, 거북이 등장하며 부분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장수의 의미로 길상을 상징한다. 이러한 십장생도는 중국의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원시신앙이 복합된 것으로써 한국만의 고유한 것이라 하겠다.

도교라는 종교보다는 하나의 민속신앙으로 발전된 것이며 조선시대 회화나 공예품 등에 자주 등장했다. 한국의 옛 미술은 아름다운 자연의 순리



<그림 2-23 > 십장생도 85)

8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9119&mobile&categoryId=1634> 검색일 : 2012. 11. 8.

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관념에서 장생 신앙에 대한 염원이라 볼 수가 있겠다. 동양사상에서 십(十)은 모든 수를 갖추는 기본으로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一”은 동·서를, “丨”은 남·북을 나타내어 사방의 모든 것을 갖춘다는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십장생 문양은 민화나 도자기, 공예품은 물론 궁궐의 꽃담장 등과 같은 건축 의장에서도 보여 지고 있다.

(가) 해(日)

해는 남성(양), 달은 여성(음)을 묘사하는데 모든 것은 빛에서 생긴다는 원리로 동양 고대의 우주 발생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궁전의 왕좌 뒤편의 일월 그림은 장생의 의미를 상징한다.

(나) 산(山)

산은 생명의 근원으로 신성하며 장수를 상징한다.

산신령을 숭배했던 일종의 원시신앙에서 비롯되어짐을 알 수가 있다.

(다) 구름(雲)

천신만이 탈 수 있는 구름은 비(雨)의 근원이다.

장수와 길상을 상징하여 구름무늬가 많이 사용되었다.

(라) 물(水)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장수를 상징한다.

물결무늬를 형상화하여 옷감이나 민화, 자수에 응용되어 사용했다.

(마) 소나무(松)

사계절 내내 푸르다는 이유로 변치 않는 우정을 비유하며, 소나무 옆에서 사슴 한 쌍이 불로초를 뜯는 그림을 그려 장수를 기원하기도 했다.

(바) 돌(石)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 하여 장수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영원불멸의 상징과 의연한 자태의 군자의 풍모를 상징하기도 한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어 동물이나 사람을 형상화하거나 음양화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다산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사) 학(鶴)

학은 봉황 다음으로 높은 새로써 구름과 함께 그려져 조형미술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12세기 중엽의 상감청자에서는 향아리, 병, 대접, 주전자 등의 넓은 지면의 공간을 활용하여 상감한 운학무늬가 가장 세련미를 보여주고⁸⁶⁾ 구름과 학을 같이 그린 운학무늬는 조선시대의 청화백자나 관복에 나타내어 선비의 청백한 기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아) 불로초(不老草)

불로초는 지초(芝草), 또는 영지초(靈芝草)라고도 한다.⁸⁷⁾

도교에서 비롯된 내용으로 .달 속의 토끼가 계수나무 아래에서 선약(仙藥)을 만들기 위해 방아를 찧는다는 신화 속에 전해져 오는 설이 있다. 이와 같이 불로초는 장생불로의 의미로 도자기, 병풍, 각 종 생활기물이나 옷감의 무늬로 사용되었다.

(자) 사슴(麕)

장수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관리의 벼슬을 상징하기도 했다.

사슴은 불행과 질병을 막아준다고 믿어 불로초를 물고 있는 사슴을 나타내어 부부의 화목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베갯모나 주머니의 무늬에서 볼 수 있다.

(차) 거북(龜)

거북은 사령(四靈), 즉 기린, 봉황, 용과 함께 ‘네 마리의 영적인 힘을 부

86) 최충식 역, 전계서, p.66.

87) 상계서, p.66.

여받은 생물' 이라 일컬어 온다.⁸⁸⁾

긴 수명으로 인한 장수와 인내, 신성을 상징하며, 거북의 등을 형상화한 귀갑무늬를 표현한 것은 천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등껍질은 하늘의 지붕을 나타내고 배의 껍질은 땅을 나타낸다하여 우주를 상징하기도 한다.

다. 기타문양

부채

헤이안(平安)시대에 행해졌던 흐르는 물에 부채를 띄워 놓고 놀던 것에서 생긴 도안무늬⁸⁹⁾로 일본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물문이다. 부채를 펼치고 오므린 모양 등 여러 모양으로 문양화 하여 시원한 감각을 표현해 주고 있다.

둥근 활 모양을 겹쳐서 추상적으로 표현한 곡선의 형태는 우아하고 경축을 의미하는 모양으로 일본의 독특한 미의 전형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한 상징적 의미는 없으며 그저 장식적이거나 양식적 표현으로 기하학적 형태와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2-24>를 보면, 부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본의 전통색채를 중심으로 차분하고 가라앉는 듯 한 저채도의 색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황금색, 차색, 백색, 자색, 남색의 부드러우면서 빛바랜 듯 한 색조로 인하여 깊은 멋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한 문양이 아니라 장식적인 표현과 기하학적이거나 꽃문양으로 전통색채와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8) 최충식 역, 전게서, p.100.

89) 전진영, 전계논문, p.52.



<그림 2-24 > 일본 부채들 90)

90) <http://blog.naver.com/hamleet1?Redirect=Log&logNo=10143222044> 검색일 : 2012. 11. 8.

분류	국가	문양명	문양사진	상징성	조형성
식물	한·중·일	당초		장수와 자손 번창의 의미	다른 문양과 결합사용하여 광범위하게 활용
	한·중·일	모란		부귀와 화목의 의미 길상의 의미	생활공예품, 회화, 직물, 혼례용품, 도자기
	한·중·일	매화		절개와 순결, 안정 오덕(쾌락, 행복, 장수, 순리, 절개)	도자기, 직물 무늬
	일본	벚꽃		일본 민족, 봄의 상징	일본 복식, 생활용품
	한·중·일	포도		장생, 다산, 다복	도자기, 가구, 고급직물, 생활용품의 장식
동물	한·중·일	용		상상의 동물로 영험함, 왕권의 권위상징	황제의 전용문양, 도자기, 건축물, 회화의 소재
	한·중·일	봉황		고귀하고 상서로움, 천하태평의 의미	건축물의 장식, 직물
	한·중·일	학		장수, 청렴의 의미, 길상적 의미	구름과 소나무 등과 함께 사용, 자수, 미술품, 공예품
	한국	해치		신수의 의미, 태평성대의 길상적 의미	궁궐이나 사원, 공공기관에서의 조각상 (중국: 사자상으로 변용 일본: 고마이누 형상)
	한국	십장생		불로장생, 길상적 의미	회화, 도자기, 공예품, 건축의장
기타	일본	부채		상징적 의미는 없으며 장식적으로 표현	일상생활 속의 사물문

[표 2-2] 전통문양의 상징성과 조형성

5. 전통색채와 문양을 활용한 실례

가. 서울시티투어 버스

한국의 중심도시를 체험 학습하는 학생들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광화문을 기점으로 사대문안의 궁궐과 서울타워, 인사동, 명동 등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순환버스이다. 고궁과 문화유적에 대한 소개를 다국어 음성안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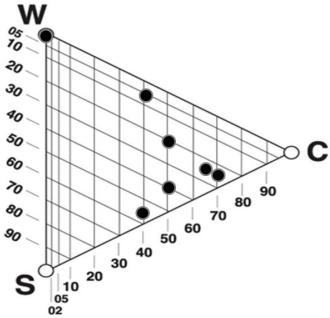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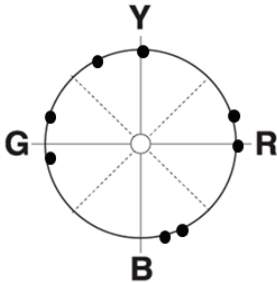
서울의 상징 해치를 시민들로 하여금 친밀함을 전달하지 위해 광화문의 해치상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선전한 심볼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오방색과 오간색(녹색)의 조화로 한국의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색채는 단청빨간색, 남산초록색, 고궁갈색 등을 응용하였다.

액운을 막아주고 행운과 기쁨을 주는 존재로 서울을 지켜주는 수호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

YR색상은 strong과 deep톤으로 강하고 진한 색을 띠며, RB는 strong, dark톤으로 강하면서 어두운 톤을 표현하였다. Y는 bright로 색채 중에서 제일 밝게 표현되었고 GY는 강한 톤으로 strong 함이 나타난다.

색채를 분석해 본 결과, 고중명도의 중저채도 톤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고유의 색으로 색동 이미지를 표현 해 주는 듯하다.

	전통문양 실생활 사례 - 서울시티투어 버스			
사 진				
팔 레 트				
	NCS 뉘앙스		NCS 색상 분포	
				
NC S 기 호	S 2570-Y80R	S 2570-G20Y	S 4050-R	S 5540-B90G
	S 0500-N	S 2565-R80B	S 2050-Y	S 0500-N
	S 0540-G70Y		S 4050-R70B	

[표 2-3] 서울시티투어 버스 이미지와 색채분석

나. 한울 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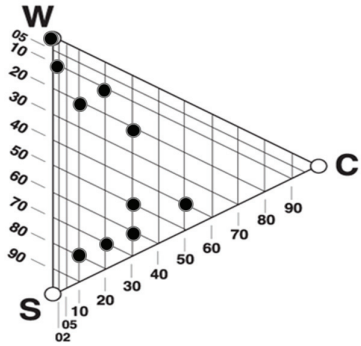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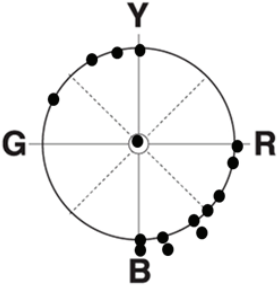
전통적이면서도 여성스럽고 기품 있는, 화려하면서도 고귀한 디자인을 포인트로 삼았다. 한국 전통의 쪽빛에 음양의 조화를 표현하였으며, 부귀영화를 상징하고 화목을 기원하고자 하는 모란문양을 사용하여 선조들의 정성과 염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수공예품스러움을 전달하기 위해 용기 윗면에 금속공예 기법의 에칭으로 표현하였으며, 한국의 보자기를 모티브로 삼아 쪽빛, 금색, 적색, 자색의 오방색과 오간색의 근간을 둔 색채를 사용하여 한국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근간을 둔 음양의 조화를 담아 선과 면의 색채로 한국의 전통적인 세련미를 표현하였다.

오방색 중 적흑색의 간색인 자색을 많이 띠고 있어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우아함이 풍기는 듯 한 표현을 연출함을 보여주고 있다.

RB의 색 계열은 어둡고 짙은 dark, deep, dark grayish 색조를 보이며 황색 빛의 GY 계열의 색상은 밝고 부드러운 light, soft 톤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색채가 부귀영화를 상징해 주는 듯 표현되고 있다.

	전통문양 실생활 사례 - 한울 화장품		
사 진			
팔 레 트			
NCS 뉘앙스		NCS 색상 분포	
			
NC S 기 호	S 4050-R80B S 0500-N S 7020-R40B S 4050-R50B	S 1020-Y S 2030-G90Y S 4050-R S 7020-B	S 1002-B S 5030-G70Y S 6030-R10B S 6030-R80B S 2010-R60B S 8010-G30Y S 7020-R60B

[표 2-4] 한울 화장품 이미지와 색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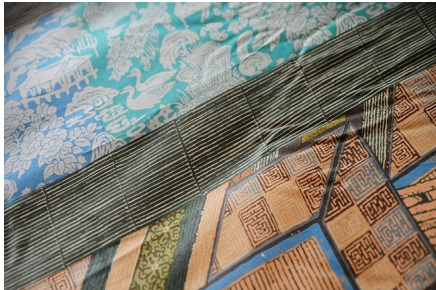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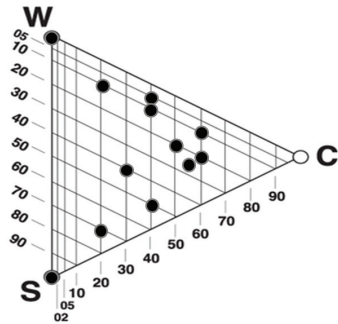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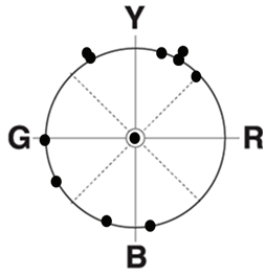
다. 패브릭 디자인

모노 콜렉션으로 유명한 장용복 선생의 “BOGG” 패브릭은 오방색과 전통문양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한국의 정감을 담은 화려하지 않은 패턴으로 표현하고 있다. 모던하고 현대적 감각이 묻어나는 침구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침구에 전통문양을 사용함으로써 가정에 다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전체적인 색채가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해 주는 차분한 색채를 띠고 있다.

BG와 RB의 deep한 강한 색조에 비해 GY, YR의 light한 톤의 색조대비가 좀 더 차분하면서도 한국적인 멋을 주고 있듯이 표현되고 있다.

전통문양 실생활 사례 - 패브릭 디자인																				
사진	 																			
팔레트																				
NCS 뉘앙스		NCS 색상 분포																		
																				
NC S 기호	<table><tr><td>S 2050-R90B</td><td>S 0500-N</td><td>S 0540-Y20R</td><td>S 4030-G70Y</td></tr><tr><td>S 1020-B70G</td><td>S 1040-Y30R</td><td>S 2555-B20G</td><td>S 1060-Y30R</td></tr><tr><td>S 2060-G70Y</td><td>S 7020-G</td><td></td><td></td></tr><tr><td>S 9000-N</td><td>S 5040-Y50R</td><td></td><td></td></tr></table>				S 2050-R90B	S 0500-N	S 0540-Y20R	S 4030-G70Y	S 1020-B70G	S 1040-Y30R	S 2555-B20G	S 1060-Y30R	S 2060-G70Y	S 7020-G			S 9000-N	S 5040-Y50R		
S 2050-R90B	S 0500-N	S 0540-Y20R	S 4030-G70Y																	
S 1020-B70G	S 1040-Y30R	S 2555-B20G	S 1060-Y30R																	
S 2060-G70Y	S 7020-G																			
S 9000-N	S 5040-Y50R																			

[표 2-5] 패브릭 디자인 이미지와 색채분석

라. 인테리어

색동색의 패턴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을 표현해 줌과 동시에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 해 준 인테리어이다. 아트월의 감색빛 격자문의 패턴은 식욕 상승의 효과를 주면서도 한층 더 한국적인 느낌을 주는 공간이다.

격자무늬와 색동색의 패턴으로 전통적인 느낌을 주면서 YR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욕 상승의 효과를 주고 있다.

식당의 인테리어 색채인 만큼 식욕을 돋우기 위한 YR 계열의 색채사용이 많이 나타난다. G는 산뜻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 light grayish 톤으로 사용하였으며 R, G, B의 색상은 색동의 느낌으로 한국적인 식당을 표현하고 있다.

실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 천정과 바닥 같은 큰 면적은 밝은 톤으로 하였으며 격조 있게 보이도록 테이블은 어두운 dark 톤을 주고 있다. 아트월의 격자문은 전통적 느낌을 주면서 식욕 상승의 밝은 YR 계열의 색상으로 연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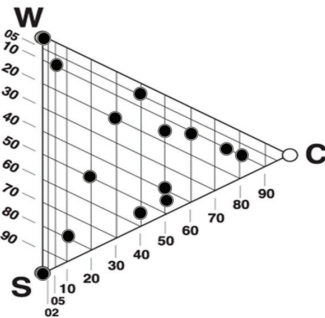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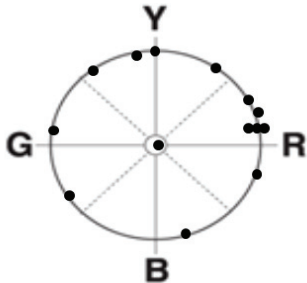
마. 가구

자수 4층장은 한국의 이미지로 "한국전통이미지 DB"에서 제시하는 생활응용상품 전통이미지이다.

한국의 전통문양인 식물문, 동물문, 문자문양을 잘 활용하였으며 전통색채를 사용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잘 살린 가구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로써 화목하고 복의 기원을 하고자 전통이미지를 활용한 사례이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예품으로써 가정의 화목과 길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격조 있는 가구는 YR 계열의 dark 톤으로 중후한 멋을 주며 한국적인 색동색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YR과 GY의 밝고 vivid한 톤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문양을 골고루 잘 표현해 준다. 다양한 동물문과 식물문으로 인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인 만큼 화목과 다산, 장수의 의미로 연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문양 실생활 사례 - 가구			
사 진				
팔 레 트				
NCS 뉘앙스		NCS 색상 분포		
				
NC S 기호	S 1080-Y90R S 1060-Y S 0500-N S 1005-G10Y	S 1075-G90Y S 5540-Y90R S 8010-Y90R S 5020-B70G	S 1080-Y40R S 4550-Y80R S 1550-R80B	S 4050-Y70R S 2030-R20B S 0540-G60Y

[표 2-7] 가구 이미지와 색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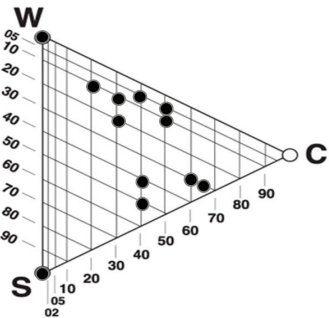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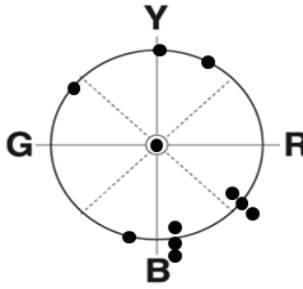
바. 전통문양 QR코드

전통문양에 현대적 감각의 QR코드를 결합하여 2010년 ‘전통문양 콘텐츠 활용 디자인 공모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대상을 차지한 작품이다. “딱딱하고 현대적인 느낌의 QR코드를 이질감 없이 전통문양에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큰 고민 이었다”고 한 디자이너 박윤경 씨는 전통문양과 어울리는 색채와 무늬로 코드화 시켰다. 나비문, 만자문, 연꽃문을 활용한 QR코드는 스마트 폰으로 찍으면 정보를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유적 안내판에 활용할 경우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관람객이 쉽게 입수 할 수 있도록 제작됨과 동시에 산업적으로 활용되길 바라는 전통문양 응용사례이다.

전통문양을 응용하여 스마트 폰으로 문화재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활용 방안이다. (현재는 적용 미 사례물이다.)

strong하고 deep한 짙은 바탕에 가시성을 주기 위한 light하면서도 bright한 밝은 톤을 사용하여 전통문양을 부각화 시키고 있다. 명시성이 높은 YR이나 GY계열의 색상을 연한 톤으로 하여 RB나 GY의 짙으면서도 강한 바탕에서 문양의 세심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전통문양 실생활 사례 - 전통문양 QR코드			
사 진				
팔 레 트				
	NCS 뉘앙스		NCS 색상 분포	
				
NC S 기호	S 3065-R90B	S 3060-B20G	S 1020-R40B	S 9000-N
	S 1030-Y30R	S 0550-G40Y	S 0540-R90B	S 0500-N
	S 5040-R40B	S 4040-R90B	S 1050-R40B	S 2030-Y

[표 2-8] 전통문양 QR코드 이미지와 색채분석

사. 스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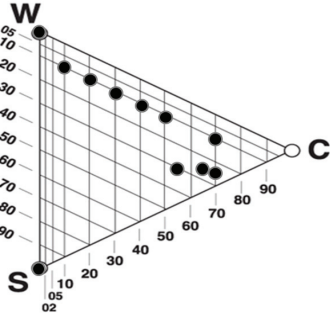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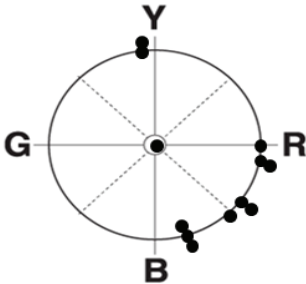
인사동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거리이다. 수없이 즐비 되어있는 상점에서는 한국전통문양을 바탕으로 한 제품들로 가득 차 있는데, 관광객을 위해 자체 제작을 한 스카프가 눈길을 끈다.

한국의 색과 문양을 고려한 많은 스카프들이 있지만, 무병장수를 염원하고 부귀의 의미를 지닌 십장생 문양의 은은한 색채가 스카프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100% 실크 소재라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스카프는 한국의 색과 문양을 가지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국 고유의 이미지를 세계 각 국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섬유공예인 셈이다.

은은한 색채로 한국의 이미지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스카프에 십장생 문양을 사용하여 무병장수를 염원하고 부귀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인의 멋을 살려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은은한 색조로 연출하고 있다. 주로 RB계열이 사용되었으며 pale하고 light한 연한 바탕에 유사색상으로 표현된 강한 선의 디자인으로 하여금 스카프의 멋을 더해 준다. 색상이나 디자인 모두 단조로움을 보이는 은은한 색조가 아닌, 바탕과 같은 계열의 strong한 색상으로 십장생이란 전통문양의 디자인이 자연주의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색채로써 잘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문양 실생활 사례 - 스카프			
사 진				
팔 레 트				
	NCS 뉘앙스		NCS 색상 분포	
				
NC S 기 호	S 1010-R40B	S 1070-R10B	S 1020-R80B	S 1030-R80B
	S 1040-R40B	S 1040-G90Y	S 2565-R80B	S 9000-N
	S 1050-R10B	S 3055-R50B	S 0500-N	
	S 0500-N	S 2570-R	S 1050-G90Y	

[표 2-9] 스카프 이미지와 색채분석

제 3 장 한국 · 중국 · 일본의 문화적 관습에 따른 유사성과 차별성

제 1절 한국 · 중국 · 일본의 국가적 특성에 따른 유사성과 차별성

1. 한 · 중 · 일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유사성과 차별성

문화는 어느 집단의 삶의 양식을 뜻하고 집단 나름대로 고유하게 발전시켜 온 것이며 다른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시 새로운 문화로 탈바꿈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므로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다.

서양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문화는 별로 다를 게 없다. 실제로 서로의 차이를 찾는 것보다 공통점을 찾는 게 훨씬 쉬운 일이기도 하다. 91) 그러나 기호의 차이도 있고 예술 감각도 다르다. 한 · 중 · 일의 문화수용은 대개 중국의 문화가 전파되어 한 · 일 사회에 수용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는데, 이 경우에 한국과 일본의 문화 속에 수용된 중국문화는 변용되어져 있다. 92)

한 국가의 문화는 독립적인 발전보다는 인접국가의 영향으로 발전하는데 자국의 문화 연구와 타문화의 상호비교연구를 통하여 유사성과 차별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문화의 특징은 자연환경과 역사와 밀접한 관계로 형성되면서 지리적 여건이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서양문물을 받아 들일 수 있었던 실크로드가 생기기 전에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류가 불가피하여 동아시아는 동양만의 특유한 문화양식과 한·중·일 3국이 유사성과 차별성을 바

91) 홍사중, 『다시 찾은 한국인의 미의식 아름다움을 보는 눈』, 경기 : 주)아트북스, 2006, p.99.

92) 원혜정, 「국가별 선호색채와 TV세트디자인 색채의 상호 관계성 연구 : 한국 · 일본 · 대만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세트디자인 색채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23.

탕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 유사성

동아시아는 대륙성 기후가 형성됨에 따라 농경생활의 시작으로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런 농경생활은 물질적 빈곤을 줄 수밖에 없었고 과학의 발달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오늘날까지 문화가 발달되고 있다.

한국·중국·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언어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한자를 사용했는데 일반 대중의 접근이 어려운 귀족층의 문자라는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바로 그 복잡성과 상형문자로서의 회화적 특질로 높은 미적 가치를 갖는다. 서예는 동아시아에 있어 위대한 예술의 하나⁹³⁾이기도 하다. 이렇게 한자는 3국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문자이다.

3국의 공통된 사상적 요인은 유교사상, 도교사상, 불교사상이다.

농경생활을 하면서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예(禮)와 효(孝)를 가르쳐준 생활의 철학인 유교사상과 개인적 독립성을 옹호하며 개인의 관심은 오직 자연의 위대한 도리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⁹⁴⁾ 하며 하늘이나 산 신령을 믿는 도가사상이 있다. 그리고, 불교는 업과 인연은 되풀이 된다고 하여 인간은 선을 행해야 복을 가져다준다는 신앙을 믿고 있다.

이렇게 삼국의 문화적 배경에는 유교사회의 전통과 함께 사회 질서와 균형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사회이며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⁹⁵⁾

나. 차별성

한국은 자연 순응주의이며 인본주의를 띠고 있지만 중국은 중화사상이

93) 이지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에 의한 환경디자인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 한·중·일 3국의 전통주거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26.

94) 상계논문, p.28.

95) 박연진, 전계논문, p.30.

중심이 되어 상대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기능주의, 실용주의의 특징이 있다. 한국·중국·일본이란 동아시아는 유교사상과 불교, 도교라는 종교와 한자를 사용하며 자연 친화론 등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방식에서 발전시켜온 모습은 다르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유교사상은 각 나라에 전파되어 그 나라의 특유성으로 인해 다르게 발전되었다. 중국의 유교사상은 성리학과 양명학의 보완관계를 갖고 발전하였으나 한국은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로 삼아 신분제 사회에서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변용되어 오히려 일본의 근대화가 되는데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국은 원시신앙에서 오는 자연숭배사상으로 사회의 기반 구축과 외래 문화를 수용할 때 기반으로 삼았으며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한 인본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연 속에서 인간화를 시키고 자연의 법칙을 근원 삼아 사회 제도를 제정하는 양자 간의 상호 관계를 중요시 하였다. 이로 인해 순자연적인 상대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중국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반면에 일본은 기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와 일본의 문화적 사상을 구분 짓는 집단주의, 강대국과의 마찰로 인해 배타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민족의 근본적인 사상을 원동력으로 삼아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본다.

한·중·일 삼국의 생활 모습에서 표출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같은 백자라도 한국인은 청백색을 좋아하는 반면 일본인은 유백색을 더 좋아한다. 일본의 민예학자 야나기 무네요시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조선시대에 색채를 즐길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⁹⁶⁾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랐을 뿐이다. 정원을 보더라도 한국인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겼으나 일본인은 미니어처를 만들어 방안에 놓고 즐겨야만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건축을 할 때에도

96) 홍사중, 전계서, p.100.

나무가 걸림돌이 된다면 한국인은 자연과 어우러지게 완성을 하지만, 일본인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집을 짓는다는 설도 있다. 조선시대의 도자기를 보면, 일본이나 중국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대칭의 도자기를 만들어 냈지만 조선의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는 좌우가 안 맞아 조금 뒤통거리곤 했다. 이는 예술품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일용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색채를 보더라도 한국인의 정서에는 화려한 색깔이 어울리지 않았다. 초가지붕이나 시골 풍경처럼 자연과 친밀한 색을 흔하게 사용했으며 수묵화에서는 꾸밈없는 소박한 의식 속에 흑백을 즐겨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흰색은 고대 부여족 때부터 사용했었는데 이것은 태양의 빛을 표현하며 신성을 상징한다. 옛 한국인은 살아가기에 바빠서 화려한 색채를 쓸 여유가 없었다. 염료도 비싸서 서민들은 하고 싶어도 못했으며, 조선 시대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조차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가 연날리거나 재기차기, 팽이 같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뿐이었다. 귀족사회에서는 색깔 있는 옷을 입었지만 화려한 옷을 입을 때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때때옷이라 하여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입었고, 멋을 내는 기생들만이 화려한 색을 입었다.

이처럼 한국은 화려한 원색을 쓰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중국인은 옷이나 건축물에 원색 중에서도 빨간색을 즐겨 사용했다. 이것은 건조하고 먼지바람이 자주 불어서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하는 의미가 있다. 색채와 풍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에서 인 것이다. 반면에 한국이 은은한 색조나 흰색을 사용하는 것도 온대기후의 영향을 받아서이다. 중국의 그림을 보면 황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풍토색 때문이다.

고대의 중국 천자(天子)들은 철에 따라 예복의 색깔을 달리했다. 봄에는 청색, 여름에는 적색, 계하(季夏)에는 황색, 가을에는 백색 그리고 겨울에는 흑색을 입도록 되어 있다고 「예기(禮記)」에 적혀있다.⁹⁷⁾ 신분에 따라 옷의 색도 달랐으며 황색은 천자의 색깔이어서 백성들이 입지는 못했다.

보라색은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색깔인데 그것은 까다로운 일본인의 전통색이며 환경과 의상에 조화롭게 쓰고 있다.

97) 홍사중, 전게서, p.117.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원래 옥(玉)을 미의 최고로 여겨왔다. 그 다음이 금, 은이었으며 도자기는 그 아래였다. 따라서 도공들은 감히 미의 정상을 탐내어 발돋움 하거나 옥만큼 아름답다고 우쭐댈 엄두를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었다. 98)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도공들은 이름을 내세우지도 못하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저 실용품들이지 흙을 소재로 하여 예술작품이라는 의식을 갖지도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다. 옥을 대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한 했는데 그것이 도자기였던 것이다. 그래서 신분이 낮은 도공일지라도 작품에 이름을 새겨 넣을 정도였다. 오늘날의 도예가들은 공예성을 내세워 작품에 반드시 자기 이름을 새겨 넣고 있다.

이처럼, 같은 것이라도 그 나라 나름대로 실현되는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 즉 한 집단은 개별문화로서 다양한 방식의 문화로 존재하는 것이다.

2. 사회·문화에 따른 특성

문화를 비교할수록 유사정보다는 차별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문화적 특성의 요인은 시대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관련성이 기반이 되므로 한국은 조선시대(朝鮮:1392~1910), 중국은 명나라(明:1368-1644), 청나라(淸:1644~1911), 일본은 무로마치(室町:1333~1573),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1573~1615), 에도(江戸:1615~1868), 메이지(明治:1868~1912)시대를 배경으로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려한다.

가. 한국 (조선시대:1392~1910)

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를 말하는데 장터의 역사는 고대에 마을을 이루어 물물교환을 할 때부터 있었다.

98) 홍사중, 전계서, p.228.

15세기 후반부터 장시가 열리기 시작해 17, 18세기에 들어서는 전국에 걸쳐 발달했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발달에 따라 생산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원인이다. 99) 조선후기에는 개성의 특산물인 인삼을 청나라와 무역하는 인삼시장을 열기도 하며, 닥나무로 만든 한지가 중국에서는 최상품으로 여겨져서 외국과의 물품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때 목화재배가 이루어져서 백색의 무명이 평민들의 옷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15세를 기준으로 하여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라 하여 성인식이 치러졌는데 성인식 이후에는 중매로만 혼인을 할 수가 있었다. 조선전기에는 혼례식이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중기와 후기에는 신부가 가채라는 값비싼 가발을 쓰는 풍조가 유행해 큰 부담이 되어, 19세기에는 국가정책으로 혼례를 간소하게 치르게 했다.¹⁰⁰⁾ 삼국시대 때부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있었으나 조선시대에는 크게 제약을 받아 여성들은 재능을 펴지도 못하며 마음대로 외출도 할 수도 없었고 남녀의 동식이 불가했다. 남편의 직위에 따라 품계를 받았으며 이때, 남존여비(男尊女卑)라는 유교이념이 생기게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여성의 옷 색깔이 제약이 없어 노랑저고리에 분홍치마가 유행했으며 어린이에게는 여러 색을 이어붙인 색동을 입혔다. 남성은 의복이 간소화 되어 양복 착용이 늘어났으며 단발이 유행되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중앙집권체제가 성립된 고려와 조선에서는 국가의 기록물과 공문서에 한문과 이두를 섞어 사용하긴 했으나 고유 언어의 통일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¹⁰¹⁾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백성들에게도 알리는 목적이 더 컸던 세종(1397~1450)대왕의 “훈민정음”이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찍어내어 한국 인쇄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고, 그 뒤 조선시대 문화부흥기인 1795년 무렵에는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활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¹⁰²⁾

신라 때는 불교가 성행하여 석탑의 변천시대라 본다면 고려시대는 나라

99) 이이화, 『처음 만나는 우리 문화』, 경기 : 김영사, 2012, p.78.

100) 상계서, pp.117~118.

101) 상계서, p.228.

102) 상계서, P.238.

에서 불교를 후원받으며 귀족 중심으로 발달한 귀족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어 조선시대는 회화 발전의 시대라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성리학과 관련이 있으며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기록물이다. 천연색으로 그려졌으며 인물의 성격이 들어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안견의 <몽유도원도>나 바위나 나무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금강전도> 같은 산수화가 있었고 일상생활을 기록한 풍속도가 서민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백성을 주도로 한 탈놀이 유행했으며, 민화가 발달 하는데 민화는 삶의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는 쉬운 내용의 예쁜 그림이나 부귀, 장수, 벽사를 비는 세화(歲畵)와 민간 신앙적 그림, 그리고 인기 있는 소재를 그린 것들이 많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¹⁰³⁾

의식주에 관련하여 생활 소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문화 이미지를 보면 대부분이 조선 후기의 예술품을 지칭하는 자연주의의 색채관과 문화나 예술에서 볼 수 있는 음양오행의 원색적인 색채관이 주도됨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화는 유교적인 영향으로 소박한 성격을 띠며 자연주의 성향이 뚜렷하다. 이런 유교적인 사고로 표현된 색채는 수묵화나 백자, 그리고 공예에 잘 드러나 있다. 조선시대에 문인들이 향유하던 수묵화는 채색 없이 먹으로만 농담을 주어 그림을 표현하여 여백의 미와 그 시대의 양반들의 풍류를 보여주고 있다. 백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화려함보다는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품격을 담고 있으며 평소 복색으로도 표출되어 자연의 색채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대중적인 민화는 오방색이 사용되어 자유롭고 강렬한 색채문화를 보여준다.

민화는 짙은 색조와 대비를 주었고, 서민들의 강인성을 보여주며 이런 생동감 있는 색채는 조각보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복락의 기원을 상징하는 의미로 서민들의 지혜와 미의식을 엿볼 수가 있다. 또, 단청에 많이 사용된 장단(長丹), 주홍(朱紅), 양청(洋靑), 황(黃), 양록(洋綠), 석간주(石間硃)의 색조는 흰색과 여러 색상과 배합하여 보색 대비를 이루었으며 따뜻한

103) 이이화, 전게서, p.203.

색과 차가운 색을 일정한 배열로 배치하여 색채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음양오행설에 따르는 색채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나. 중국 (명:1368~1644 , 청:1644~1911)

명·청 시대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했으며, 화약, 종이, 인쇄술이 발달해 중국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농수산물과 수공업 제품이 발달한 유통의 시대라 할 수 있으며 서양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시대로, 명나라 때의 청화백자는 유럽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또한 상업의 교류로 계산기였던 수판이 널리 사용되기도 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쌀농사 이외의 농업을 치기 시작하여 견직물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직물업 등 공업의 발달로 인해 소금, 직물, 도자기, 차 등 전국적으로 교역 품목을 이루어 활발한 상업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유럽 상인으로부터 은이 유입되어 은경제가 중국의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면서 정부가 세금을 은으로 거둬들이자 명의 경제발전은 활기를 찾게 되었고 서양 상인들과의 무역으로 흘러든 은의 유통은 더욱 확대 되었다.

명·청 시대에는 부세와 병역을 거두기 위해 호구 명부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황책”이라 하였으며 인구증가를 위해 마련된 이것은 황색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청나라 때에는 수레를 타고 다녔었는데 삼품 이상의 관리만 탈 수 있었고 은, 주석과 비단을 사용하여 꾸미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공업의 발달은 자연적으로 서민의 지위향상의 요인이 되었고 또한 지식인층이 나오면서 서민문화가 성장하게 됨에 따라 문화의 발달도 성행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소설과 연극이 대중화되고, 청나라 후기에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경극이 성행하여 중국의 전통예술로 등장하게 되었고 화려한 옷과 진한 화장으로 풍부한 색채를 가지고 대중성을 확보하여 색채로써 대중에게 의사소통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명시대에는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어 무대분장이나 의상에 다양한 색을 사

용하였으며 청시대에도 황색, 붉은색, 녹색, 흰색, 검은색의 상오색과 보라, 남색, 분홍색, 연두색, 고동색의 하오색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중국 예술에 있어서 화려한 색채관을 보여주었다.

18세기에는 청대의 대표학문인 실용적인 학문으로 일컬어지는 고증학이 성행하여 객관적이며 독창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학문을 개척하게 되어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학문으로 만들었다. 유교, 도교, 불교의 3종교가 있었으나 불교가 대중적인 종교로 성행하였으며, 화약의 발달로 인해 현대 의식 속에서도 볼 수 있는 폭죽문화는 청나라 때의 부엌 신을 섬기는 행사였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예복의 앞가슴에 큰 휘장을 달아 지위를 나타냈으며 19세기에는 화려한 무늬의 비단옷이 특수층임을 알리기도 했고 자개를 박아 넣은 칠기 세공품이 귀하게 여겨졌다. 중국인은 용이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림이나 도자기, 전통가옥의 기와지붕을 보면 용의 장식이 대부분이다. 또 음악을 생활의 일부로 여겼다.

오늘날의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중화민족’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문화적 자부심과 민족적 동질의식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용어일 것이다.¹⁰⁴⁾ 이런 사상이 강하다보니 자신들의 문화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차이나타운을 세우는 것이라 보여 진다.

다. 일본 (무로마치:1333~ 메이지:~1912)

무로마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의 서민적 경향과 지방보급이다. 신불교가 성행하여 민중의 지위 상승이 있었고 문화를 애호했던 선종으로 인해 문화,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선종의 영향으로 수묵화가 유행하여 흑색으로 농담 조절을 한 무채색과 낯은 느낌의 퇴색적으로 보이는 색조가 유행하였다. 노는 여전히 상류사회에서 사랑받았지만 동시에 소박하고 오락성이 강한 노로 나타나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¹⁰⁵⁾ 그리고, 농지의

104) 정재규, 「미국·중국 및 일본의 문화적 특성과 게임시장 비교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13.

면적을 늘리고 광산에서 금과 은을 캐어 경제력을 갖기 시작했다. 은과 잡석을 가려내는 기술을 조선으로부터 받아들여 명의 소홀한 틈을 타 동아시아 해상의 큰 무역시장을 만들었다. 이 때 서양의 학문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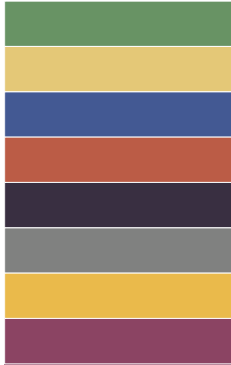
아즈치 모모야마시대에는 유교 사상으로 학문이 발달했으며, 불교문화가 약해지면서 미술과 생활 문화에 변화가 크다. 대표적인 것이 성곽 건축인데 “히메지 성”이 잘 보여주고 있다. 금빛문화가 대표라 할 수 있는 모모야마시대는 화려한 금벽화가 유행하면서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도 하고 성의 내부를 금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화려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히메지 성내부에는 금박지와 청색, 녹색의 호화로운 벽화가 장식되어 있으며 화려하고 웅장한 성격을 띤다. 또한 이 시기에 다도를 즐겼으며 서양식 활자 인쇄술과 안경, 포도주, 시계 등 서양 문물을 접하고 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무로마치 막부 때 무사들의 칼 솜씨를 자랑했다면 에도막부엔 지식인으로 바뀌어갔다. 전쟁 때문에 시끄러웠던 시대가 가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아 농민들의 농사기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상업에도 발전을 가져왔다. 도시발달에 기여를 하면서 미술 등 문화에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고 부녀자들은 외모에 치장하는데 관심이 많아졌다. 장식회화가 등장하여 회색이나 갈색, 청색계통의 색이 대중적으로 유행했으며 가부키의 성행으로 서민들에게 색에 대한 호응을 일으켰다. 17세기 중·후반에는 특산물을 재배하여 어업의 발달과 동시에 염업도 발전했다. 닥나무를 재료로 한 종이 생산되면서 학문과 문화의 발달을 가져오면서, 점차 도시에는 음식점과 극장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전통극인 가부키가 발전하게 되었다. 다양한 문학과 미술이 발전하면서 경제가 성장 할 수 있었던 큰 계기이다. 이때 대표적인 미술은 화려한 색채로 묘사한 서민의 모습을 담은 <우키요에>이다.

무사들이 사회 전반을 이끌어 가면서 가마쿠라 시대의 색채문화는 단조로운 색이 나타났다. 직물이나 공예품에 주나 금색을 부분적으로 주어 색채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무채색은 그런 색채를 더 돋보이게 해 주었다.

105) 일본사학회 지음, 『아틀라스 일본사』, 경기 : 주)사계절출판사, 2011, p.96.

메이지 정부는 일본을 부강한 나라로 하기 위해 서양 문물을 적극 수용했다. 그래서 통신시설과 철도를 설치하며 “엔”이라는 화폐 개혁을 하고, 서양화되기에는 노력했으나, 중국과 조선은 침략의 대상으로 여겨 청·일 전쟁과 조선은 식민지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메이지 시대는 천왕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고, 오늘날의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강대국으로 만든 밑거름이라 볼 수 있겠다. 일본을 떠올리면 먼저 전쟁을 떠올리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아서는 서구지향적인 특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국가 분류	한국	중국	일본
특성	자연 순응주의, 인본주의, 남존여비사상	중화사상의 상대론적 세계관	기능주의, 실용주의, 서구지향주의
사상	유교사상	불교사상	신 불교, 유교사상
경제	도시발달, 인구증가, 물품교류, 인삼, 한지의 생산 활발	건직물 생산으로 공업발달, 농수산물과 수공업의 상업 발달로 유통확대, 은경제 발전	천황 중심, 해상의 무역시장을 만들어 서양문물 수용, “엔”의 화폐개혁, 통신시설 과 철도 설치, 농업과 어업, 염업 발달 금과 은을 캐어 경제력확보
문화	산수화와 수묵화, 민화를 바탕으로 한 회화발달, 금속활자의 인쇄문화 부흥기	화약, 종이, 인쇄술 발달, 서민문화의 성장으로 문화 발달, 경극 성행, 고증학 성행	도기 생산, 장식회화의 미술발달, 극장의 등장으로 서민적 경 향이 강한 전통극 ‘노’, ‘가부키’ 발전
색채관	흰색을 기본으로 한 소박 한 색채관, 오방색을 중요시 한 색동, 자연주의 색채관	빨간색, 황색. 음양오행설을 기본으로 한 상오색, 하오색의 화려한 색채	금색, 청색, 녹색의 화려한 색채, 무채색과 탁색계열의 색조 유행
색채 팔레트			

[표 3-1] 한·중·일 시대에 따른 국가별 특성

3. 자연환경에 따른 국가 선호색채의 특성

색채는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반응에 대하여 색으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으며, 인간의 감성과 더불어 사회 문화적 측면을 반영하게 된다.¹⁰⁶⁾ 한 문화권 안에서 공유되는 색채 유형은 기후와 풍토 등의 자연적 요인 그리고 사상과 관습 시장과 산업, 재료와 법규 등 한 시대와 사회의 총체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적 산물이다.¹⁰⁷⁾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사회·문화와 자연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색채관을 볼 수 있으며, 민속신앙에 바탕을 둔 색채는 감성적인 색채라기보다는 색채를 하나의 힘으로 간주하려는 의미지향적인 색채로 볼 수 있다.¹⁰⁸⁾ 따라서 색채는 국가의 사회와 자연환경에 기반을 두고 수용되며 한 시대의 패러다임에 연동되어 변화하므로 사회·문화와 민족성에 따라 다르게 인지되어 각 나라마다 시대적 배경과 전통 속에서 고유한 색채를 가지게 된다. 동일한 색이라도 문화적 차이로 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나라의 대표되는 색상과 색조를 고려하여 색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06) 원혜정, 전개논문, p.24.

107) 권영길, 전개서, p.77.

108) 김지언, 「한국과 중국의 문화색채 특성 : 전통극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33, No.3, 韓國衣類學會, p.459

가. 한국의 선호색채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 위치하여 4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로 중위도 지방의 특성을 보이는 한국은 은은한 색조가 특징이며 자연환경으로 인해 풍부한 색감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색은 백색이라 할 수 있는데, 무명이나 모시 같은 의복이나 조선백자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한 국기의 바탕 흰색도 그러하다. 흰색

은 평화, 순결을 상징하는데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한국인의 소박한 생활 모습을 담고 있다.

붉은색은 권위를 상징하는 색으로서 힘의 색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태종6년 이후, 홍색은 황의 복색이 되어 역대 왕의 곤룡포 색으로 사용¹⁰⁹⁾했으며 집단의식이 표출되었던 2002 월드컵 때 붉은 바다로 물들었던 것도 에너지를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이다.

명절이나 화려함을 과시할 때 입었던 색동은 한국의 이미지를 상징하기 좋은데 아시아나 항공이 동아시아적인 모티브로 삼은 것도 하나의 예이기도 하다.



<그림 3-1 >
한국관용색명¹¹⁰⁾

한국인의 색채는 자연과 동화되는 고중명도에 중저채도의 특성을 보이며 특히 건축색은 YR의 grayish, light grayish 색조를 띄었다. 복식에서는 염색하지 않은 p톤의 Y, YR색상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고채도의 색상으로는 주로 R계열의 색상이 선호¹¹¹⁾되고 있다. 한색계열의 soft한 부드러

109) 권영걸, 전게서, p.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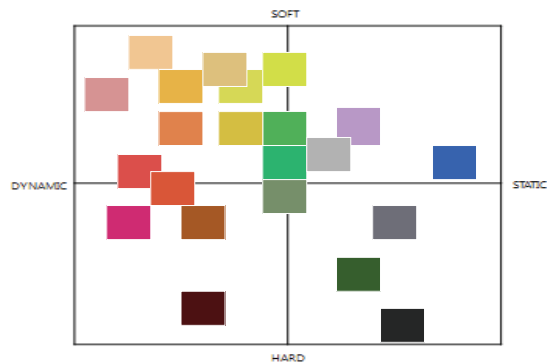
110) 원혜정, 전개논문, P.28.

111) 상개논문, P.28.

은 이미지의 색채가 특징이며 G와 B 계열의 색상으로 밝고 화려한 색채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 3-2 > 한국 상징표현들



<그림 3-3 > 한국 선호 색채 스케일

따라서, 한국색채는 자연에 의한 소박한 이미지의 백색계열의 선호와 전통적인 축제나 건축에서 볼 수 있듯이 보색대비를 통한 원색의 화려한 색채대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 중국의 선호색채

중국은 서고동저의 지형으로 만물이 근원은 서쪽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태양을 숭배했다. 영토가 크다보니 언어도 다양하고 지역마다 기후 역시 다르다. 아시아와 태평양 사이에 있어서 계절풍 기후이며 기온차이도 크다.

[illegible]

<그림 3-4> 중국관용색명¹¹³⁾

중국의 황제는 하늘에 제를 올릴 때 하늘을 표상하는 담청색 옷을 입었고, 대지에 제를 올릴 때는 황색 옷을 입었으며, 태양에 제를 올릴 때는 빨간 옷을 입었다.¹¹²⁾ 대기 중에 먼지가 많아서 주로 빨강을 사용하였으며 청색 등의 원색 계열이 발달 하였고, 고채도나 저명도의 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명·청 시대에 평민의 색은 갈색만 허용했었는데, 이런 색채는 역사와 문화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생활 습관과 방식에 큰 상징적 의미를 두고 있다.

화려하면서도 선명한 색을 좋아하는 중국인은 부귀와 행운을 준다는 빨간색을 선호하며 노란색은 귀하다고 생각하여 제왕만이 사용했던 색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국기 오성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오성홍기의 붉은 바탕색은 혁명을 상징하고 별은 민족의 대단결을 상징하며, 황색별은 붉은 대지 위의 광명을 뜻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인은 노랑과 빨강과는 큰 인연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와 자연이 창조해낸 전통 문화임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빨간색은 경사로우거나 행운이 있다고 믿어서 결혼식이나 폭죽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으며 도시환경,

112) 권영걸, 전계서, p.190-191.

113) 원혜정, 전개논문,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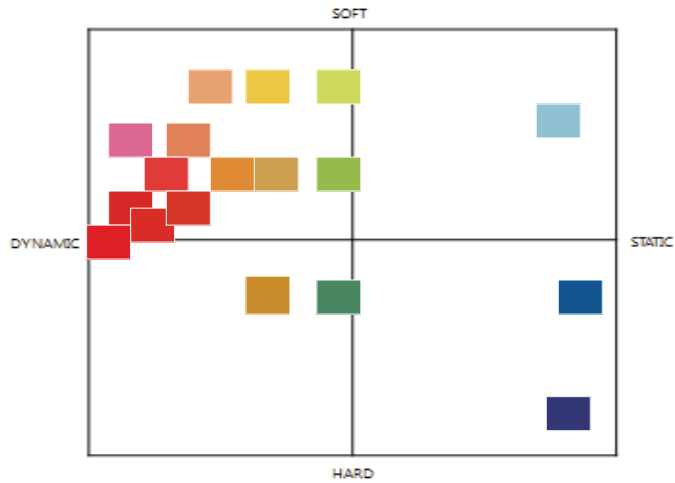


<그림 3-5 > 중국 상징표현들

건축, 의상, 상품 등에는 예외 없이 붉은 색이 넘친다.¹¹⁴⁾ 명·청의 태화전을 보면 파란하늘 아래 반짝이는 금황색 유리기와 건축물과 환경의 색조를 강렬하게 대비시킴으로써 건축물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드높이고 있다.¹¹⁵⁾ 이것은 차가운 색의 청록색과 따뜻한 노란색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게 한다.

114) 권영걸, 전개서, p.69.

115) 이주노, 김은희 역, 전개서, p.149.



<그림 3-6 > 중국 선호 색채 스케일

중국인은 자연 그대로의 세계관에서 객관적 세계를 보았으며 색채를 사용할 때에 자연색과는 반대로 강한 원색을 사용하여 환경 색과의 대조를 둔 것이다. dark한 어두운 톤보다는 밝고 강한 색채를 사용하였으며 옐로우 베이스에 R, Y, G 계열의 색이 많이 쓰였고, 청색조의 색채 특성도 나타났다.

다. 일본의 선호색채

일본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며 화산으로 이루어진 산지가 대부분이다. 길게 뻗은 지리적 여건으로 남북산 기온차도 심하고 기후는 고온다습하며 한랭한 기후이다.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외래 문물을 도입하기가 쉬웠으며 일본의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잘 융화시켜 특색 있는 문화로 발

전해 왔다. 영국의 색채감과 유사성을 띠는 것도 이 때문이기도 하다. 자연의 혜택을 듬뿍 받은 섬나라 일본은 생활환경이 여유가 있고 지배하는 왕가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안정된 국가사회를 보장받고 있었으며, 따뜻한 기후에서 주어지는 초록의 녹음과 꽃을 선물로 받아 즐겁고 화려한 색채의 예술로 마음껏 뽐내어 왔다.¹¹⁶⁾

1981.012	JAPANESE YELLOW	일본사람들 대다수 사용하는 밝은 노란색
1981.012	JAPANESE YELLOW	일본사람들 대다수 사용하는 주황빛 노란
4.1798.018	JAPAN ROSE	일본 정미색이라고 하는 중형도의 주황
991.005	FUJIYAMA	일본의 후지산을 표현한 중형도의 밝은빛 갈색
4.1798.012	TOKYO	일본의 도쿄를 이미지화 한 밝은 주황
9.1981.012.0	TOKYO	일본의 도쿄를 이미지화 한 선명한 노란 빛 변종(0)
9.1981.012	JAPANESE RED	일본사람들 대다수 사용하는 밝은 붉은 빛 갈색
9.1981.012	KOBÉ	일본의 고베 항구 이름을 이미지화 한 밝은 붉은 빛 갈색(0)
9.1981.012	NEGISHI IRO	남기시(다도섬)의 지명(동명)으로 알려져 볼 수 있는 희박 계통의 올리브색
9.1981.012	JAPANESE GREEN	일본인을 연상하게 하는 희박 녹색
9.1981.012	JAPANESE BLUE	일본인을 이미지화 하는 희박빛의 회랑
9.1981.012	HIROSHIGE	일본의 후지산을 볼 수 있는 희박 계통의 올리브색
9.1981.012	GEISHA	일본의 기생(명가)의 의복을 이미지화 한 중형도의 붉은빛의 보라
9.1981.012	GEISHA	일본의 기생(명가)의 의복을 이미지화 한 희박빛 보라

<그림 3-7 >

일본관용색명¹¹⁷⁾

일본의 색채문화는 한국이나 중국과는 다르며 탁색 계열의 그레쉬한 톤으로 우아하고 기품 있는 색에서 근검·절제를 내포한 무채색 계열이 쓰이고 있다. 또한 고채도의 원색 사용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전달해 준다. 이렇게 색채는 두 가지의 매우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 하나는 건축과 실내에 사용된 색으로 목재와 왕골 같은 자연적인 색조와 넓은 면적을 중성색으로 사용하는 단조로운 느낌의 이미지이며, 또 하나는 일본 의상에 나타나는 화려하고 다양한 이미지다.¹¹⁸⁾

탁색 계열의 그레쉬톤이 주조색을 이루어 고명도, 고채도의 선명한 대비의 조화를 이루는 양극화 특성이 나타나며, 절제성을 띤 색은 plae톤과 light톤의 복식의 색과 확연한 강조색을 구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뜻한 난색계열의 조합으로 민속축제나 복식과의 색채 대비를 통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해 주며, 복식의 옐로우 베이스의 색채는 무채색이나 일본인의 신체 색과 대비를 주어 비교적 큰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봄과 가을의 색채특성으로 따뜻하고 붉은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니 아이보(Aibo:지능형 애완 로봇강아지)는 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적 의미로 금속성의 재질과 일본스러운 색감을 보여준 예이기도 하다.

116) 이가, 전계논문,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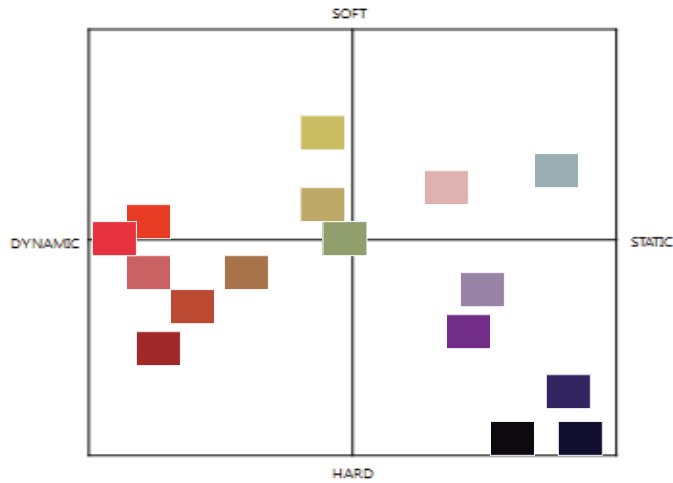
117) 조은영, 전계논문, p.65.

118) http://www.ikissyou.com/IKY_Blog 검색일 : 2012. 9. 18.



<그림 3-8 > 일본 상징표현들

또한 한국과 중국과는 달리 간색 사용이 많으며, 의복에 사용한 PB와 P 계열의 검정에 가까운 청색계는 카마쿠라시대 때 승리의 색으로 유행했었으며, 기모노에 금박을 사용하면서 황금색을 선호하기도 했다. 일본의 전통문양의 색을 보면, 모모야마 시대의 녹(綠)색을 중심으로 동일배색과 색의 대조를 두어 색을 사용하였으며 화려한 색과 황금색을 사용했던 에도시대 때 적(赤), 자(紫), 청(靑), 차색(茶色) 등의 자연색을 기본으로 하여 좀 더 다채로운 색이 등장하지만, 차(茶), 감(甘), 서(鼠), 남(藍)색 등 탁한 계열의 가라앉는 듯 한 색상과 무채색이 일본의 색채관을 보여준다. 교토 지역의 맥도널드는 환경의 색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고유의 맥도널드 색상 빨강이 아니라 일본 환경에 맞는 갈색에 가까운 탁색계의 빨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3-9 > 일본 선호 색채 스케일

일본의 색채는 자연색에서 느껴지는 어둡고 엄숙한 중간색이 가라앉는 느낌¹¹⁹⁾으로 절제성과 감각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의상에서 보여 지듯이 따뜻한 계열의 화려한 이미지를 선호하며 무채색이나 B계열의 진하고 채도가 낮은 탁색 계열을 주조로 하여 색채대비를 주어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2절 한국 · 중국 · 일본의 네일 디자인 표현기법에 따른 문화적 차이

네일 디자인은 관습적으로 손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색채를 비롯해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아트를 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표현의 테크닉이 있다. 표현기법에 따라 한국 · 중국 · 일본의 네일 디자인 테크

119) 김세나, 「일본전통문양을 응용한 현대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의류과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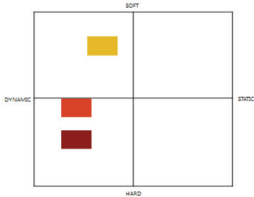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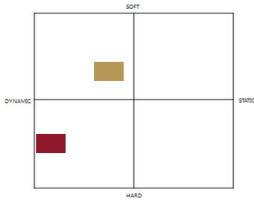
닉과 색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의 네일 테크닉과 색채

15년 전 한국의 네일 관리는 기본관리가 주를 이루었으며 네일 디자인 부분에서는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해외, 특히 일본의 네일 강사를 초빙한 세미나를 기점으로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네일 테크닉이 점차 성행하게 되었다. 네일 컨테스트를 함으로 아트의 창작성은 날로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에는 해외 컨테스트에서도 한국인의 기술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컨테스트에서는 주로 장식적인 예술로 작품을 선보이지만 그런 디자인으로 인해 살롱에서도 실용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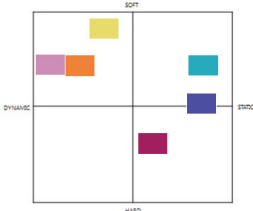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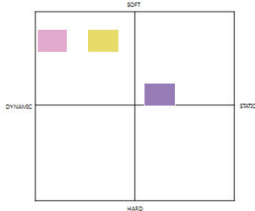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는 일러스트나 아크릴릭의 디자인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아크릴 특유의 냄새로 인해 요즘은 칼라의 지속력도 오래가는 젤 네일이 유행하고 있다. 기존의 젤은 하드 젤이었기에 지우기도 힘들고 두툼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칼라처럼 얇게 발리고 다양한 아트를 구사할 수 있는 젤 팔리쉬의 등장으로 인해 젤 디자인의 테크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의 영향을 받아 장식적인 파츠를 붙이는 붐이 이른 시점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네일 테크닉과 색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법	디자인 스냅취	디자인 스냅취 + 자개
사진		 <그림 3-10 > 120)
색채팔레트		
색채분석	YR 계열의 색상과 흰색과 검정색 분포	YR색상, 흰색, 검정색 분포
이미지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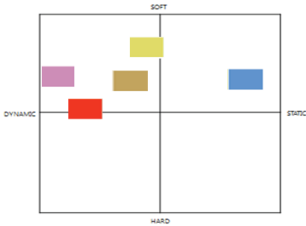
[표 3-2] 한국 네일 디자인 및 색채분석

120) http://minihp.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45973535 검색일 : 2012.
11. 13.

기법	2D	체크칼라
사진	 <그림 3-11 > 121)	
색채팔레트		
색채분석	RB, BG, YR 계열의 색상과 흰색 분포	YR 색상과 흰색, RB 색상 분포
이미지스케일		

[표 3-3] 한국 네일 디자인 및 색채분석

121) http://minihp.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45973535 검색일 : 2012. 11. 13.

기법	아크릴 스컬프 + 실사 데칼	젤 + 스톤
사진	 <그림 3-12 > 122)	 <그림 3-13 > 123)
색채 팔레트		
색채 분석	GY, RB, YR계열의 색상과 검정색 분포	RB계열의 색상과 YR색상, 흰색, 검정색 분포
이미지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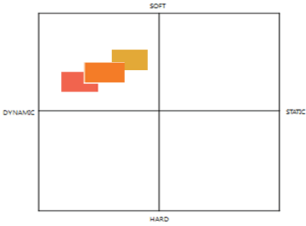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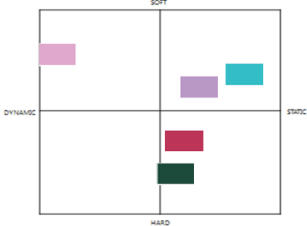
[표 3-4] 한국 네일 디자인 및 색채분석

122) http://minihp.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45973535
11. 13.

검색일 : 2012.

123) http://minihp.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45973535
11. 13.

검색일 : 2012.

기법	디자인스컬췌 - 스틸레토	디자인스컬췌 + 핸드페인팅
사진	 <그림 3-14 > 124)	 <그림 3-15 > 125)
색채팔레트		
색채분석	YR계열의 색상과 흰색 분포	BG계열과 RB계열의 색상과 흰색분포
이미지스케일		

[표 3-5] 한국 네일 디자인 및 색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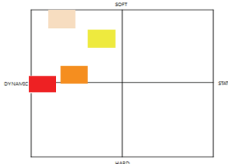
124) Nail Magazine, 『Odyssey Book, Make.7』, 2012, p.12.

125) Nail Journal, 『NAILPIA, No.54』, 2010, p.59.

2. 중국의 네일 테크닉과 색채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네일아트보다 낙후됨에 따라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점차 성행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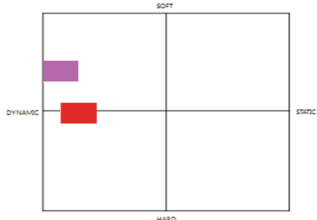
아트를 보면, 처음 한국에서 유행했던 단순한 디자인이 많으며 테크닉의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기법	3D	일러스트
사진	 <그림3-16 > 2009중국 구이저우 아시아 태평양 대회 출품작품¹²⁶⁾	 <그림 3-17 > 127)
색채팔레트		
색채분석	B, GY 색상과 흰색 분포	YR 계열의 색상과 검정색 분포
이미지 스케일		

[표 3-6] 중국 네일 디자인 및 색채분석

126) <http://blog.naver.com/5msd?Redirect=Log&logNo=60089692026> 검색일 : 2012. 11. 14.

127) <http://blog.naver.com/5msd?Redirect=Log&logNo=60095681569> 검색일 : 2012. 11. 13.

기법	포크아트	마블 + 3D
사진	 <그림 3-18 > 128)	 <그림 3-19 > 129)
색채팔레트		
색채분석	R과 RB색상, 흰색 분포	RB, GY계열의 색상과 흰색 분포
이미지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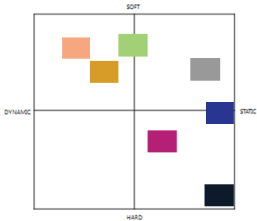
[표 3-7] 중국 네일 디자인 및 색채분석

128) <http://blog.naver.com/5msd?Redirect=Log&logNo=60089692026>
14.

검색일 : 2012 11.

129) <http://blog.naver.com/5msd?Redirect=Log&logNo=60089692026>
14.

검색일 : 2012. 11

기법	젤 + 파츠	2D
사진	 <그림 3-20 > 130)	 <그림3-21 > 중국 선수 작품131)
색채팔레트		
색채분석	RB 색상과 검정색 분포	RB, YR, GY계열 색상과 흰색, 검정색 분포
이미지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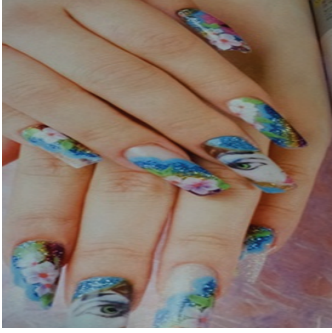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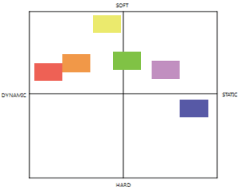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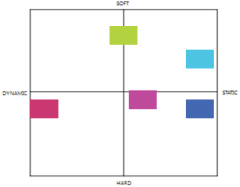
[표 3-8] 중국 네일 디자인 및 색채분석

130) <http://blog.naver.com/sunnydnjs?Redirect=Log&logNo=140147720869> 검색일 : 2012. 11. 14.

131) <http://cafe.naver.com/4esthe/525> 검색일 : 2012. 11. 14.

3. 일본의 네일 테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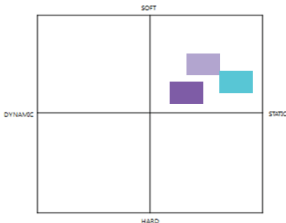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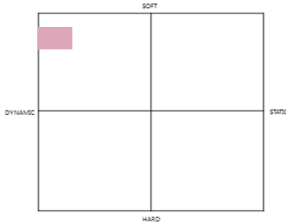
일본의 네일아트는 한국보다 약 10년 앞서 있으며 아기자기 한 아트가 주를 이룬다. 평면적인 디자인보다는 입체적인 2D디자인의 아트를 대중적으로 즐겨 사용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크릴릭이나 젤네일이 성행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재료를 찾아 일본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장식적인 네일아트가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

기법	디자인 스킵취	디자인 스킵취
사진	 <그림 3-22 > 132)	 <그림 3-23 > 133)
색채팔레트		
색채분석	GY, YR, RB계열 색상과 흰색, 검정색 분포	RB계열 색상과 BG, GY 색상 흰색, 검정색 분포
이미지스케일		

[표 3-9] 일본 네일 디자인 및 색채분석

132) Nail Magazine, 『ネイル MAX 2010』, JAPAN, 2010, p.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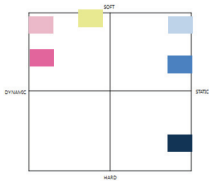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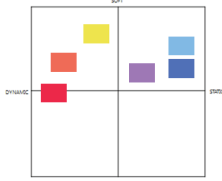
133) Nail Magazine, 『ネイル UP! 2007』, JAPAN, 2007, p.69.

기법	젤 마블	아크릴 오버레이
사진	 <그림 3-24 > 134)	 <그림 3-25 > 135)
색채팔레트		
색채분석	BG, RB계열 색상과 흰색 분포	RB 색상과 흰색 분포
이미지스케일		

[표 3-10] 일본 네일 디자인 및 색채분석

134) Nail Magazine, 『ネイル UP! 2007』, JAPAN, 2007,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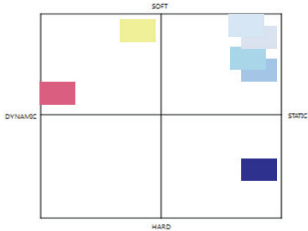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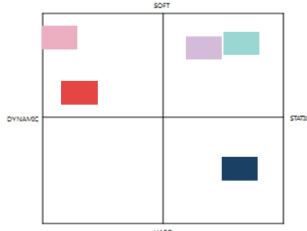
135) Nail Magazine, 『ネイル UP! 2004』, JAPAN, 2004, p.79.

기법	파츠	2D
사진	 <그림 3-26 > 136)	 <그림 3-27 > 137)
색채팔레트		
색채분석	RB 계열 색상과 흰색, BG 계열 색상 분포	YR 계열 색상과 흰색, 검정색 GY, RB 고루 분포
이미지스케일		

[표 3-11] 일본 네일 디자인 및 색채분석

136) Nail Magazine, 『ネイル MAX 2010』, JAPAN, 2010, p.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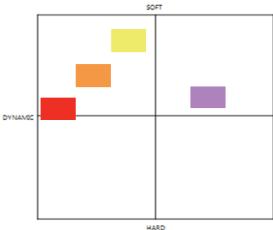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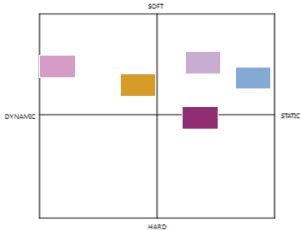
137) Nail Magazine, 『ネイル MAX 2010』, JAPAN, 2010, p.104.

기법	레이스	2D + 파츠
사진	  <그림 3-28 > 138)	   <그림 3-29 > 139)
색채팔레트		
색채분석	흰색, GY, RB 계열 색상 분포	YR, RB 계열 색상, 흰색 분포
이미지스케일		

[표 3-12] 일본 네일 디자인 및 색채분석

138) Nail Magazine, 『ネイル MAX 2010』, JAPAN, 2010, p.47.

139) Nail Magazine, 『ネイル MAX 2010』, JAPAN, 2010, p.40-41.

기법	디자인스컬췌 - 스틸레토	디자인스컬췌 + 에어브러쉬
사진	 <그림 3-30 > 140)	 <그림 3-31 > 141)
색채팔레트		
색채분석	RB, YR계열 색상, 흰색 분포	RB 계열색상과 Y, 흰색, 검정 분포
이미지스케일		

[표 3-13] 일본 네일 디자인 및 색채분석

140) Nail Magazine, 『ネイル MAX 2011. 10』, JAPAN, 2011, p.106.

141) Nail Magazine, 『ネイル MAX 2011. 10』, JAPAN, 2011, p.74.

한국·중국·일본의 네일 테크닉과 색채를 분석해 본 결과,
네일 문화가 앞선 한국과 일본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며 특히 일본은 아기자기 한 장식 예술 표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중국은 단순한 디자인이 많았으며 점차 디테일 한 디자인으로 성장 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색채사용에 있어서는 한·중·일 모두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지만, 특히 RB 계열의 색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색채 선호는 YR, RB, GB, GY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라앉은 중저채도의 바탕에 흰색과 검정색을 함께 사용하여 디자인의 섬세함을 표현하였다. 일본의 색채는 RB계열의 색상이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YR, BG, GY 계열의 색상을 고루 사용하면서 흰색이나 검정색으로 디자인을 부각시켰다. 또한 다채로운 색상과 고채도의 색채 사용으로 캐주얼하면서도 화려함을 주기도 했다. 중국의 색채사용은 RB, GY, YR 순으로 나타났으며 BG계열의 색 사용은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흰색과 검정색은 디자인의 섬세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세 나라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의 디자인은 아직은 디테일 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네일 디자인 산업이 성장해 온 만큼 중국도 멀지 않았으리라 본다.

네일 디자인 테크닉과 더불어 다양한 색채와 표현기법으로 손톱 안 1cm×1.5cm이내에서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이 신체에 장식하고자 하는 욕망과 표현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교로 인해 네일리스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까지 기분전환과 개성 연출의 표현으로 자리매김 되어 글로벌한 뷰티산업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제 4 장 한국·중국·일본의 전통색채와 문양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적용한 네일 디자인 제안 사례

네일 디자인 제안은 한국·중국·일본의 특징적 이미지를 선정하여 이미지의 작품 유래와 특성을 먼저 살펴본 후, 작품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삼아 색채와 특징적 이미지를 표현하여 네일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작품의 네일 테크닉으로는 아크릴릭의 디자인 스킵취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디자인에 대한 연출적 설명과 NCS 분석을 통하여 색채분석을 하고자 한다. 색채분석은 NCS 인덱스를 사용하여 유관측색을 하였으며 NCS 색기호를 통하여 색상 분포도와 뉘앙스 분포도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색채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1절 한국 디자인을 응용한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1. 탈놀이 중 하회탈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

(가) 하회탈의 유래와 특성

한국의 전통 민속극 탈춤은 탈을 쓰고 춤추며 노래로 엮는 놀이적 연극을 말한다. 탈춤은 극의 내용과 함께 해학적이면서 풍자적인 면을 탈의 표정으로 통해 극의 상황이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민중들의 미감에서 나온 예술적 표현의 변모라 할 수 있다.

현재 전승되어 오는 탈춤으로 많은 탈놀이가 있으나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선정하여 탈놀이에 등장하는 하회탈 중에서도 양반탈을 연구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동에서 탈을 쓰고 행하진 가면놀이로 중요무형문화재 6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많은 탈 중에서도 국보 제 121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약 500년 전부터 전승되어 오고 있다는 유래가 있다.

종교적 제의인 굿과 민속극인 탈놀이의 조화로 되어있는 특징이 있으나 하회탈의 제작 시기는 연구 문헌을 토대로 고려중기로 추정되고 있다. 타 지방의 탈은 모두 바가지와 종이 등의 재료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재료를 덧붙이는 기법을 사용했지만 하회탈은 나무를 깎아 만든 기법으로 한국의 다른 탈과는 다른 제작기법을 표출하고 있다.



<그림 4-1 > 하회탈의 종류 142)

하회탈에는 각시, 중, 양반, 선비, 초랭이, 이매, 부네, 백정, 할미, 주지 2개(암주지, 숫주지) 등 10종 11개가 있으며 정교하게 조각한 후 여러 겹 옷칠하여 채색된 것으로 현존 가면들 중에서 조형미가 가장 뛰어나다고

142) <http://blog.naver.com/happyzippy?Redirect=Log&logNo=110073693156> 검색일 : 2012. 11. 5.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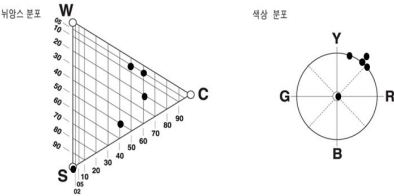


<그림 4-2 > 양반탈 143)

하회탈은 한국인의 골격의 모습을 표정으로 담아 표현하고 있어서 조형적인 예술품으로 뛰어난 사실성과 입체성을 묘사하고 있다. 유희적인 목적으로 만들었기에 해학적인 면이 강하고 웃는 모습이나 놀란 표정을 풍자적인 요소로 탈에 형상화시켜서 보여준다.

143) <http://blog.naver.com/yangmj?Redirect=Log&logNo=10018546665> 검색일 : 2012. 11. 5.

(나) 하회탈 중 양반탈의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표 4-1]

구 분	작품제작 - 하회탈 중 양반탈
작품사진 <그림 4-3>	
네일 테크닉	아크릴릭 - 디자인 스킵취
작품설명	하회탈의 웃는 형상을 선과 면으로 표현하였으며, 밝은 톤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연출하였다.
NCS 분석 및 색채경향	
색채 팔레트	
NCS 분포	
	S 0550-Y50R S 2060-Y40R S 5040-Y40R S 9000-N S 0560-Y20R
색채경향	YR계열의 색상으로 색조의 변화와 검정색. bright, strong, deep tone영역.

2. 도자기를 응용한 네일 디자인

(가) 도자기의 유래와 운학무늬의 특성

도자기는 고려시대의 청자, 조선시대의 분청자와 백자가 있으며 600여년의 오랜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문화유산이다. 각 시대의 사람들이 삶에 대한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용구로써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질그릇이 도자기의 시초라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상감청자와 조선시대의 각종 공예품 등에 표현한 운학문양은 그릇의 표면 장식 문양과 관복(官服)의 흉배(胸背)에 사용하여 선비의 기상을 상징하고 조형미술포로써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문양이다.

구름문양과 학 문양을 같이 표현한 것을 운학문양이라 하는데 상감청자와 청화백자, 자수, 민화, 민속 공예품 등에서 볼 수 있다.

구름문양은 한·중·일 3국이 사용하였으며 천문기상의 중요한 징표이기도 하다.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지향하는 뜻으로 학문을 연마하고 인격수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학문양은 고귀함과 청렴의 의미를 상징하여 동양 미술 전반에 사용된 대표적인 문양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학은 일품조라 하였고 선학이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봉황 다음으로 높은 새로써, 뜻이 높고 바르고 아담함이 으뜸간다는 의미로 선학(仙鶴)이 구름 속에서 비무(飛舞)하는 모양을 일컬어 고아일품(高雅一品)이라 하기도 하였다.



<그림 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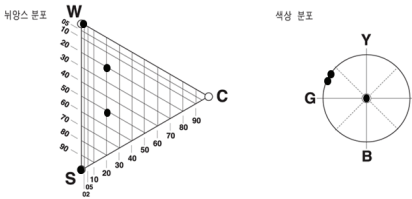
청자상감

운학문 매병144)

본 연구의 작품은 상감청자에 표현된 운학문양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144) <http://blog.naver.com/wjdwjd9096?Redirect=Log&logNo=130134640384>
2012. 11. 9.

(나) 도자기의 운학문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표 4-2]

구 분	작품제작 - 도자기 운학문
작품사진 <그림 4-5>	
네일 테크닉	아크릴릭 - 디자인 스킵취
작품설명	상감청자의 운학무늬를 모티브로 삼아, 구름 사이로 학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NCS 분석 및 색채경향	
색채 팔레트	
NCS 분포	NCS 기호
	S 2020-G40Y S 0500-N S 5020-G30Y S 9000-N
색채경향	G30Y, G40Y의 색상과 흰색, 검정색 분포. light grayish, grayish tone영역

3. 봉황을 응용한 네일 디자인

(가) 봉황의 유래와 특성

동물문양 중 새를 소재로 한 문양은 종류도 다양하며 상징성 또한 다르다. 새를 소재로 한 문양과 상징성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새의 종류	상징성
봉황	상상의 동물이며, 새 중의 왕.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고귀함의 상징
공작	아홉 가지의 미덕을 갖추, 권세의 상징 (㉠열굴모습 단정, ㉡목소리 맑음,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행동해야 할 때를 알고, ㉤먹고 마시는 절도를 알며, ㉥분수에 맞게 만족함 ㉦흠여지지 않음, ㉧음란하지 않음, ㉨갓다가 되돌아 올 줄 안다.)
백로	백색의 고고한 자태를 추구, 한 번에 급제 한다는 의미
원앙	부부금슬, 백년화목의 의미
기러기	최상의 상서로움을 표현하고 평안함을 상징
평	화려하고 품위 있는 성품
삼족오	태양 상징
금계	오덕 『문(文), 무(武), 용(勇), 인(仁), 신(信)』을 갖추, 고귀존영(高貴尊榮)의 상징
까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기쁨의 상징
참새	기쁨 상징

[표 4-3] 새문양의 상징성

작품제작에 앞서 봉황의 유래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봉황은 중국 후 한대에 나타났으며 고대에도 성군(聖君)과 덕치(德治)를 증표하여 등장한다. 한국은 불교와 함께 전래되었으며 태평을 기원하여 대

웅전의 단청이나 왕실의 복식과 장신구, 현재 대통령의 전용 휘장 문양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장식으로 시대를 추월하는 문양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노래나 춤에서도 봉황이 사용되었다.

봉황은 새 중의 왕인 민속 상상의 동물이다. 태평성대의 의미로 천자(天子)를 상징하는데, 천자의 궁문에 봉황을 장식하여 ‘봉궐(鳳闕)’, ‘봉문(鳳門)’이라 하였고, 천자의 수레를 장식하여 ‘봉거(鳳車)’나 ‘봉련(鳳萊)’, ‘봉여(鳳輿)’라 했다. 좋은 벗을 ‘봉려(鳳侶)’, 아름다운 누각을 ‘봉대(鳳垓)’, 아름다운 피리소리를 ‘봉음(鳳音)’이라고¹⁴⁵⁾ 한 것을 보면 봉황이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봉황은 여인들의 수의 소재나 건축, 공예 등 여러 가지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봉황 두 마리를 그린 쌍봉도(雙鳳圖)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해주며 봉의 앞부분은 기러기, 뒤는 기린, 뱀의 목, 물고기의 꼬리, 황새의 이마, 원앙새의 깃, 용의 무늬, 호랑이의 등, 제비의 턱, 닭의 부리를 가졌으며 오색(五色)을 갖추고 있다고¹⁴⁶⁾ <설문해자(設文解字)>에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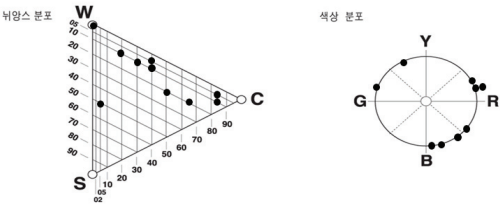
<그림 4-6 > 봉황 147)

145)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10917 검색일 : 2012. 11. 5.

14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7224&imageNo=1&categoryId=1645> 검색일 : 2012. 11. 5.

147)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10917 검색일 : 2012. 11. 9.

(나) 봉황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표 4-4]

구 분	작품제작 - 봉황
작품사진 <그림 4-7>	
네일 테크닉	아크릴릭 - 디자인 스킵취
작품설명	마주보고 있는 쌍봉황을 오색 빛깔과 함께 입체감을 살려 표현하였다.
NCS 분석 및 색채경향	
색채 팔레트	
NCS 분포	NCS 기호
색상 분포 	S 1020-Y70R S 2065-R90B S 1085-Y80R S 0500-N S 1030-R40B S 2050-R60B S 0540-G70Y S 0585-Y80R S 1040-G20Y S 5005-R80B
색채경향	Y70R, Y80R과 G20Y, G70Y 색상과 R40B에서 R90B 영역의 색상분포. grayish하고 light, strong tone영역에 주된 분포

제 2절 중국 디자인을 응용한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1. 경극에서의 검보를 응용한 네일 디자인

(가) 검보의 유래와 특성

중국의 약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경극은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극이다.

인물의 성격과 인품을 결정하는 것이 경극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얼굴에 특수한 화장법을 한 것이 검보이다. 북제(北齊)에 난릉왕(蘭陵王)은 재주와 무예가 뛰어났지만 얼굴이 아름다워 적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흉악한 가면을 쓰고 싸우면서 전투마다 이겼다고 한¹⁴⁸⁾ 1천여 가지가 있는 알록달록한 가면설에서 유래되었다.

위협을 주기 위해 썼던 가면은 홍의지방에서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 힘들어 색과 무늬로 얼굴에 표현하여 극중 캐릭터를 인식시키기 위해 검보로 발전했다고 한다.

‘검(臉)’은 얼굴(face)을 의미하고, ‘보(譜)’는 형식, 계보를 의미한다.¹⁴⁹⁾ 이렇게 검보는 색채로 인해 관객들에게 인물의 배역을 판별할 수 있게 하며 과장된 분장으로 강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빨간색은 충성을 뜻하고, 검정색은 용맹하고 지혜로움을, 노란색은 음흉하고 간사함을 뜻하며 파란색과 초록색은 강직함과 오만한 인물일 때, 흰색은 거만한 인물을 상징할 때 이와 같은 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148) <http://cafe.naver.com/chinasisastudy/1061> 검색일 : 2012. 11. 5.

149) 이선영, 「중국 경극분장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 검보(臉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25.



<그림 4-8 > 북경 경극공연¹⁵⁰⁾

이처럼 검보는 색채와 정형화 된 형태를 통해 상징성을 부여하며 과장된 표현 분장이 관객에게 함축적인 의미로 전달되어지는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시각적 언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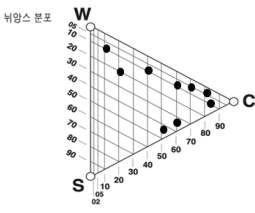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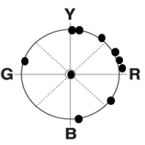


<그림 4-9 > 검보의 종류¹⁵¹⁾

150) <http://cafe.naver.com/vipkr/190> 검색일 : 2012. 11. 5.

151) <http://cafe.naver.com/chinasisastudy/1061> 검색일 : 2012. 11. 5.

(나) 경극의 검보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표 4-5]

구 분	작품제작 - 경극의 검보	
작품사진 〈그림4-10〉		
네일 테크닉	아크릴릭 엠보 - 2D	
작품설명	알록달록한 색의 검보를 모티브로 좀더 과장된 연출을 해 보았다.	
NCS 분석 및 색채경향		
색채 팔레트		
NCS 분포		NCS 기호
뉘앙스 분포  색상 분포 		S 0580-Y80R S 4550-R90B S 2020-Y S 1060-Y40R S 0570-Y10R S 9000-N S 3560-G20Y S 1040-R40B S 0500-N S 1010-Y70R S 1085-Y90R
색채경향	YR계열의 색상이 중점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R40B, R90B, G20Y 색상. pale, light, bright tone과 deep tone 영역	

제 3절 일본 디자인을 응용한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1. 일본의 벚꽃 사쿠라를 응용한 네일 디자인

(가) 사쿠라의 유래와 특성

에도시대 초기에 벚나무를 감상하는 풍류를 하나미(化見)라 하였는데 도쿠가와 요시무네 시대부터 벚꽃 가로수를 보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무아래에서 술잔치를 벌이는 의식이 정착화 되어 생긴 유래가 있다.

벚꽃은 3~4월에 꽃을 피우는데 활짝 피었다가 깨끗이 낙화한다하여 일본의 무사정신과 국민성을 상징하여 ‘사쿠라’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헤이안 시대 때부터 귀족놀이로 알려진 바 있으며, 근세의 에도시대에는 서민들 사이에서 화려한 꽃놀이가 활발해져서 고되고 각박한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을 찾는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핑크빛의 화사함을 갖춘 벚꽃은 일본을 상징하는 국화이며, 벚꽃나무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면서 연회를 즐기며 벚꽃을 감상한다는 일종의 축제로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축제로써 일본인들의 낙(樂)을 뜻하는 하나미 축제는 현재에도 일본사회의 전통문화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림 4-11 > 하나미를 즐기는
일본풍경¹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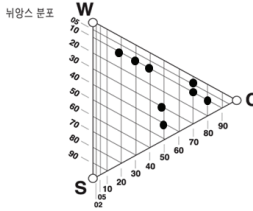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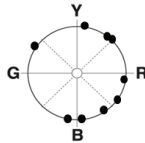


<그림 4-12 > 일본의 벚꽃¹⁵²⁾

152) <http://www.welcome.city.yokohama.jp/kor/topics/0903/index.html> 검색일 : 2012. 11. 5.

153) <http://www.welcome.city.yokohama.jp/kor/topics/0903/index.html> 검색일 : 2012. 11. 5.

(2) 일본의 벚꽃 사쿠라 작품제작 및 색채분석 [표 4-6]

구 분	작품제작 - 일본의 벚꽃	
작품사진 〈그림4-13〉		
네일 테크닉	디자인 스킵취 + 핸드 페인팅	
작품설명	색상변화로 봄기운의 산뜻함을 표현하였으며 정형화 된 하얀 벚꽃을 디자인한 후, 꽃술을 드러내 보이며 훑날리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	
NCS 분석 및 색채경향		
색채 팔레트		
NCS 분포		NCS 기호
뒤임스 분포  색상 분포 		S 1030-B10G S 4050-G40Y S 1030-R40B S 1070-Y50R S 1040-R40B S 0500-N S 4050-R90B S 3050-R40B S 1020-R60B S 1070-R10B S 0570-Y10R
색채경향	Y10R에서 Y50R 영역, G40Y, B10G, RB계열에 고루 분포. lighr와 bright, dull tone 영역	

제 5 장 결 론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메니큐어는 기본적인 손 관리의 목적이었으나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메니큐어의 관심이 중요하게 자리매김 되었다. 아름답고 화려한 색상으로 개성 있는 디자인을 연출함은 독창성과 예술성을 추구하게 되고 글로벌한 사회 속에서 대중화됨에 따라 아름다움의 이미지 구축과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현대사회의 트렌드라 할 수 있는 네일의 문화는 나라별로 특성은 달랐지만 삶의 질이 높아지고 미를 추구하는 서비스로 급성장 해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 역사는 길고 국가성을 띤 사회·문화는 현재에도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다. 누구나 개성이 있듯이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민족성에 따라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기에 역사적으로 인접한 문화권 안에서 발전 해온 동아시아의 한국·중국·일본을 사회·문화와 함께 문화적 관습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중국·일본의 메니큐어의 역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술적인 의미로 붉게 손톱을 물들이면서 시작된 의미와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성장으로 네일 문화가 대중화되어 끊임없이 발전하는 유사성이 나타났다.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네일 문화가 자리매김 되어 여성은 물론 남성들에게 까지 대중화를 이루는 전문 산업분야로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네일리스트들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네일 문화가 10년 정도 앞서 있으며, 중국은 타국과의 협력기관과 세미나를 통해 성장해 가고 있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색채분석을 하기 위하여 스웨덴 연구소에서 개발되어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NCS 색체계를 중심으로 색채개념을 알아보

왔다.

셋째, 전통색채와 국가 선호색채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으로 오방정색과 오방간색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었다. 대표적인 색은 백색으로 고중명도와 중저채도의 특성을 보였으며 전통 축제나 건축에서는 보색대비가 있었다. 원색의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긴 했으나 자연과 동화되는 색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전통색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빨강을 선호하며 존귀의 의미로 노랑도 사용했으며, 청색조의 특성도 나타났다. 음양오행설에 따르는 홍색, 황색, 흑색, 청색, 백색을 사용하지만 자연과의 대조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은 탁색 계열이나 무채색, 고채도의 화려한 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의 상징표현들을 색채 스케일을 통해 분석한 결과, 3국은 문화적 관습이 색채에도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원시신앙의 숭배로 시작하였으나 종교적으로 상징화 되어 공예나 미술, 건축 등 조형 예술의 원천이 되는 인간의 미의식을 표현해 주는 전통문양에 대해 고찰 연구 하였다.

전통문양은 지역 환경이나 민족성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그 시대의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온 것을 말하며 일종의 그림언어으로써 현실적 욕망을 담아내는 성취와 염원을 표현하는 주술적 성격으로 표현되고 있다. 문양의 분류는 식물문과 동물문, 기타문으로 제시하였다.

한·중·일 모두 장수와 다산, 다복, 길상적 의미 등의 상징성과 공예품, 회화, 직물, 건축물 등 조형성의 유사성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은 자기민족을 상징하는 벚꽃과 상징성 없이 주로 장식의 목적으로 표현하는 기타문을 가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한국을 선정하여 전통색채와 문양을 활용한 실례를 찾아 색채 팔레트를 제시하고 NCS 색채분석을 해 보았다. 분석한 결과 고중명도의 톤으로 YR과 RB의 영역이 비교적 많았으며 GY, BG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토대로 YR과 RB의 색상계열이 한국인이 선호하는 색채라 판단된다.

여섯째, 근세시대의 나라별 사회·문화 특성에 따른 유사성과 차별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문화의 특성은 자연환경과 역사적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데 자연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한자 사용과 유교·도교·불교사상의 요인이 유사성을 나타냈다. 한반도의 통일로 도시와 나라 부흥에만 중요시 한 한국인은 늘 생활 질서 유지에만 힘쓴 반면에, 중국은 중앙집권체제 강화와 서양과의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의 활기를 찾았다. 산업의 발달로 인해 자연적으로 서민문화가 성장하게 되어 화려한 무대분장을 하는 연극도 성행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은 미술, 생활문화, 학문이 발전하면서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되며 서양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서구지향적인 특성을 강화하는 차별성을 보였다.

일곱째, 네일 디자인 표현기법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한국·중국·일본 별로 구분하여 색채 팔레트를 통한 색채분석을 해 보았다. 주로 YR과 RB 계열의 색상 빈도율이 많았으며 흰색과 검정색은 디자인을 부각시키기 위한 세퍼레이션 컬러로 라인표현을 할 때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중·일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고찰 연구하고 색채 분석하였으며 한·중·일 국가의 대표적인 이미지 작품을 선정하여 연구사례를 실증적으로 전개하였다. 작품제작은 선정된 작품의 특성을 살려 전통색채와 문양을 응용하여 연출하였으며 NCS 색체계를 통한 색채분석도 해 보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전통색채와 문양의 응용은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로써,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재구성되어 활용도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네일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창의성 있는 영역 확장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중·일의 전통색채와 문양을 응용하여 네일 디자인에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며, 색채분석을 통한 네일아트에 대한 선행연구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으로 접근하는 네일 디자인의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권영걸(2006), 『색채와 디자인 비즈니스』, 서울 : 도서출판 국제
- 김영미(1999), 『Nail Technology』, 서울 : 고문사
- 우석진, 영진정보연구소(2005), 『컬러리스트 기사/산업기사 필기 특별대비』, 서울 : 영진닷컴
- 이숙연 외(2002), 『Nail Care and Design』, 서울 : 청구문화사
- 이영순 외(2000), 『네일관리학』, 서울 : 고문사
- 이영숙 외(2000), 『네일관리학』, 서울 : 청구문화사
- 이이화(2012), 『처음 만나는 우리 문화』, 경기 : 김영사
- 이주노, 김은희 역(2011), 『색채와 중국인의 삶』,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 일본사학회 지음(2011), 『아틀라스 일본사』, 경기 : (주)사계절출판사
- 장석임 외(2003), 『네일리스트를 위한 네일아트』, 서울 : 정문각
- 최충식 역(2006), 『한국전통문양의 이해와 응용1.2』, 서울 : 창지사
- 프랭크 H 만케, 최승희 · 이명순역(2002), 『색채, 환경 그리고 인간의 반응』, 서울 : 국제
- 홍사중(2006), 『다시 찾은 한국인의 미의식 아름다움을 보는 눈』, 경기 : 주)아트북스

2. 학위논문

- 김민희(1989), 「전통복식에서 나타난 홍색과 홍화에 의한 전통염색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나(2002), 「일본전통문양을 응용한 현대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의류과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수옥(1999), 「한국미술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의한 색채 표현에 관한 연구 : 전통색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하림(2008), 「전통색채를 활용한 색채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학순(2009), 「한국 전통 문양을 모티브로 한 네일 디자인 연구」,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려(2012), 「한국과 중국의 전통색채의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 뮤지컬<명성황후>와 <송성가무쇼>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 김현진(2006), 「동북아시아지역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 : 한국·중국·일본의 16~19세기 복식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숙(2008), 「기모노에 내재된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에 관한 고찰」, 단국대학교대학원 일본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민지혜(2011), 「침선구를 활용한 장신구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서울과학기술대 NID융합 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진(2007), 「한국 길상 문양의 조형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 김환기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주환(2012), 「한·중 전통을 주제로 한 가로경관 색채비교연구 : 서울 인사동, 상해신천지(新天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야마다 마미코(2011), 「한국과 일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혜정(2009), 「국가별 선호색채와 TV세트디자인 색채의 상호 관계성 연구 : 한국·중국·대만 드라마 <꽃보다 남자> 의 세트디

- 자인 색채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선(2009), 「메니큐어 文化 類型에 따른 治療와 表現 技法에 관한 研究」,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 가(2008), 「전통문화와 전통문양의 재현에 관한 연구 : 중국과 한국의 전통주 외(外)포장디자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2011),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화 연구 : 네일(미용)아트 의 법제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봉(2004.), 「전통문양을 이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대구미래대학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10), 「중국 경극분장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 검보(臉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신(2006), 「한국 전통 색채를 이용한 컬러마케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은하(2012), 「영화의 미장센 요소로서 색채의 감성효과에 관한 연구 : 영화 <거미숲>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2003), 「전통색채를 바탕으로 한 색채표현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1997),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에 의한 환경디자인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 한·중·일 3국의 전통주거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2007), 「한국 사찰 단청 문양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 인타샤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석사학위논문
- 장혜선(2010), 「한국 전통색채와 문양을 활용한 네일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서경대 미용예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전진영(2003), 「韓·日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비교 연구 : 16~18C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의류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재규(2005), 「미국·중국 및 일본의 문화적 특성과 게임시장 비교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영(2007), 「색채감성의 국가별 분석과 한국인의 개인색채 유형에 따른 패션색채 기호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푸산산(2008), 「한국과 중국의 전통문양에 대한 비교 연구 : 유사문양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조형예술 석사학위논문

3. 학술지

- 김은정, 박재인(2009), 「서울상징 해치가 가지는 의미와 특성」, 연세대학교대학원 생활디자인 석·박사 학술지논문, 『한국디자인포럼』 Vol.25, No.-,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p.86
- 김지언(2009), 「한국과 중국의 문화색채 특성 : 전통극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33, No.3, 韓國衣類學會, p.459

4. 간행물

- Nail Journal, 『NAILPIA, No.1』, 2009
- Nail Journal, 『NAILPIA, No.54』, 2010
- Nail Magazine, 『Odyssey Book, Make. 7』, 2012
- Nail Magazine, 『ネイル MAX』, 2010

Nail Magazine, 『ネイル MAX』, 2011
Nail Magazine, 『ネイル UP!』, 2004
Nail Magazine, 『ネイル UP!』, 2007
Trang Nguyen 칼럼, 『뷰티신문 수, 제133호』, 2012
Weekly Beauty 『Beauty Magazine, No.102』, 2012

5. 인터넷 자료

http://arts.search.naver.com/service.naver?where=arts_detail&query=%B4%E7%C3%CA%B9%AE%C0%E5%BD%C4%B6%EC%os=688173
<http://blog.daum.net/airport99/1080>
<http://blog.daum.net/mchjun/462>
<http://blog.naver.com/5mad?Redirect=Log&logNo=60089692026>
<http://blog.naver.com/5mad?Redirect=Log&logNo=60095681569>
<http://blog.naver.com/blancdechine?Redirect=Log&logNo=150144234283>
<http://blog.naver.com/chojpnw?Redirect=Log&logNo=130113835103>
<http://blog.naver.com/hamleet1?Redirect=Log&logNo=10143222044>
<http://blog.naver.com/happyzippy?Redirect=Log&logNo=110073693156>
<http://blog.naver.com/minamur0?Redirect=Log&logNo=10115304250>
<http://blog.naver.com/minamur0?Redirect=Log&logNo=10138636049>
<http://blog.naver.com/plusalpha7?Redirect=Log&logNo=130120770568>
<http://blog.naver.com/rokmc9378?Redirect=Log&logNo=60173043463>
<http://blog.naver.com/sang40?Redirect=Log&logNo=70129562618>
<http://blog.naver.com/shadowbabo?Redirect=Log&logNo=20138187236>
<http://blog.naver.com/sunnydnjs?Redirect=Log&logNo=140147720869>

<http://blog.naver.com/ukiana3?Redirect=Log&logNo=10138084823>
<http://blog.naver.com/wjdwjd9096?Redirect=Log&logNo=130134640384>
<http://blog.naver.com/yangmj?Redirect=Log&logNo=10018546665>
<http://cafe.naver.com/chinasistudy/1061>
<http://cafe.naver.com/chonhyang/59>
<http://cafe.naver.com/cosmania/4253976>
<http://cafe.naver.com/historyexam/49900>
<http://cafe.naver.com/vipkr/190>
<http://cafe.naver.com/4esthe/525>
<http://kin.naver.com/qua/detail.nhn?d1id=13&dirId=130102&docId=15790525>

7

http://minihp.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45973535
<http://mybox.happycampus.com/khj4119/4593639>
<http://myshelter.kr/zbxe/lecture3/97044>
http://navercast.naver.com/contens.nhn?contens_id=10917
<http://neoboori.blog.me/11014750266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439913&imageNo=1&categoryId=346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7224&mobile&categoryId=164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9119&mobile&categoryId=163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1431&mobile&categoryId=1125>
http://www.ikissyou.com/IKY_Blog
<http://www.kansai.gr.jp>
<http://www.seoulcitybus.com>
<http://www.welcome.city.yokohama.jp/kor/topics/0903/index.html>
www.culture.go.kr

ABSTRACT

A Study of Nail Design Analysis through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Nail Polishing in Korea, China and Japan

Son, Jung Ah
Major in Beauty Colo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modern culture has contributed an economic development after re-organized the unique cultural style of each country. In the meantime, the manicure culture, which needs creative development, is also significantly positioned in the globalization by taking the quality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manicure culture becomes popular in the global society, it is recognized to the trend of modern society without distinction of sex or age, so that people wants to take the manicure service of not only the basic thing in which an image of beauty designed but also the technical one which is mainly treated the gorgeous color and characterful design.

People all has personality, the culture differs with countries, the country has an intrinsic color as its ethnicity, and the color is

expressed based on the culture of country.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was based on th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neighboring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In this study, it was firstly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al custom and the characteristic of those countries. After that, this research shows that how its traditional color and pattern is reflected into the nail design as the formative arts.

First, after studying the history of manicure, it was suggested a color palette in order to know what kinds of color and expression technique is reflected into nail design due to the color is the key point for being stood out a design from the manicure, and then analyzed a color pattern by taking the color system of NCS. Second, depending on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 of each country, it was analyzed the scale of color image preferred, moreover, how to be designed from traditional patterns and then how to be used in one's real life before adapting for a nail design.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traditional patterns adapte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many similarities in using plants and animals patterns in Korea, China and Japan. Especially, in Japan, it was found that lifestyle pattern was used sometimes for decorative purposes. As for the color in Korea, it was confirmed that a nature color was mostly preferred because of the nature adaptation trait as well. The nature color was mainly used of middle and high brightness or low and middle chroma. As for the architecture in Korea, a showy color was remarkably used such as green and blue. In China, a red and yellow color were usually used. Furthermore, it was seen that strong color and blue color systems were significantly used as well contrasted with natural color and opposite color. On the other hand, in Japan, a dull color was used a lot like achromatic color and blue color

system. As for the color of clothe, it was seen that there were often contrasted with warn color in order to stand out the strong image. For the above reason, it was confirmed that while similaritie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olor and the pattern after being accepted influences of cultural custom in Korea, China and Japan.

Considering the color of nail expression method, it was selected the typical image of each country and then expressed it into nail design together with color.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harmonized between the preferred color and the traditional color in each country, in hence, it was naturally applied into the nail design in which the design of traditional pattern stood out.

In conclusion, the nail design is now requested an originality, an unique color and a technique as well. What the main purpose and aim is to be naturally used the nail design in harmony with other part even in a different point of view.

Key Words: manicure, color system of NCS, scale of color image,
traditional pattern, traditional color, nail design,
nail presentation method